

겨자씨.

KWANGSUNG MUSTARD SEED MAGAZINE

2024
AUTUMN
VOL.52

특별대담

곽승현 위임목사 & 2024 임직 대상자 3인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장로,
진짜 안수집사,
진짜 권사!

Issues & Trend

재활용 너머
프리사이클링
PreCycling



CONTENTS



표지사진
[화담숲 단풍] 박해준

04

VISION 24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 5대 비전

05

3040 조이풀선교회 9가정 필리핀 선교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I 최신일

감사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07

2024 Kwangsung Special

08

특별대담

I 광승현 위임목사 & 2024 임직자 3인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장로, 진짜 안수집사, 진짜 권사!



13

2024 선한사마리아인 맥추절 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14

선교회 소식 I 허정도 外 6인

내 생애 최고의 사역 한 컷

18

The 희망나눔 I 김태선 권사

영혼 살리는 일엔 국적 불문, 나이 불문!

20

Issues & Trend I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21

재활용 너머 프리사이클링(PreCycling)

I 유미호

24

제로웨이스트 교회 실천 사례 I 서미영

높은뜻하늘교회의 제로웨이스트 이야기

26

제로웨이스트 개인 실천 사례 I 이수연

환경, 기후 위기 등은 신앙과 관련된 문제

28

10월의 향기 I 방성빈

스물하나, 서른다섯

30

광성미디어팀

나는 예배자입니다 - 광성미디어팀

33

어와나 I 고은정

‘2024 어와나 T&T 캠프’를 다녀와서

34

성경 컬러링

바벨탑

36

성경 속 물건 I 김종식

강보

37

꿈꾸는 다음세대

38

꿈담 I 유아부

작은 예수, 사랑스러워 가는 아이들



39

꿈담 I 사랑여린이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40

꿈담 I 초등 2부

‘귀는 쫓긋, 눈은 반짝’ 이야기를 들어요!

41

꿈담 I 초등 6부

열정 만점 초등 6부

42

꿈담 I 중등부

2024 꿈젠 필리핀 비전트립



44

꿈담 I 고등부

기쁨, 은혜, 다가감, 그리고 고등부

46

2024 특별기획 I 임희국

‘AGAIN, 1907!’ ④

평양 신앙 각성 운동

50

이웃 교회 탐방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노곡교회



52

광성드림학교 I 임주아

2024 드림비전스쿨

54

우리는 3040

Scars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됩니다!

56

멋쟁이 7080

아름다운 노년들의 학교, 광성노아스쿨



58

경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올림픽

6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릴레이

62

이종수 기자의 교회 구석구석 포토스케치

전도위원회 군 선교 현장



65

청년광장

66

HOT ISSUE

청년부 찬양팀 ‘visionary’

68

청년부 국내선교 I 홍천 풍암교회

70

두근두근 열정 I 네팔

72

함께 배워요 I 수어

73

문화 & 독자 마당

74

우리 교회 뮤지션

해금 연주자 김명진

75

poem I 서보연

노이즈 캔슬링

76

명작 Review

크리스마스 선물

78

여행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파주 여행지 3곳

80

우리 결혼했어요 I 한충경

어쨌거나, 팔불출

82

함께 읽고 싶은 글 I 밥 짓는 할머니 밥순덕

먼 길 떠나던 그날

83

이벤트

가을 여행 사진 1컷

84

크로스로드 I 손민준

필리핀 판디에 직업학교를 세웠습니다



86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3040 조이폴장년부 9가정 필리핀 선교 사랑의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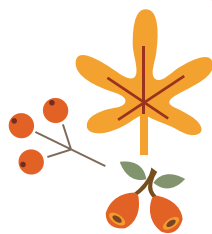
- 선교지** 필리핀 빠야따스(쓰레기산), 톤도(쓰레기강)
- 현지 선교사** 최성욱·이지은 선교사
- 기간** 2024년 8월 2일 ~ 8월 8일
- 참여 인원** 35명(어른 20명, 어린이 15명)
- 최연소 참가자** 박성준·채설 집사님 가정의 둘째 박지안(23개월)
- 참여 가정** 9가정
- 선교지 지역** 빠야따스와 톤도 지역을 방문하여
어린이 사역 진행. 예배, 찬양, 율동, 놀이,
선물 나눔, 페이스 페인팅, 사진 촬영

“어디에나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이 사역 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에서도 밝게 웃는 그 땅 사람들을 통해 누가 가난한
자인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 얼굴이 벌써 그립습니다. 첫 번째 해외선교였
는데 벌써 다음 선교가 기대될 정도로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여행이 아닌 선교를 경
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넓다는 것과 하나님 사랑
이 깊다는 것을 깨달으며 지경이 넓어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두 아들 김지행(초등 1), 김지성(5세)과
첫 해외선교에 참여한 우주희 집사

감사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글 최신일 목사(미국, 세계선교침례교회)



추수감사절은 1620년경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인디언 부족의 도움으로 살아남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린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문화 체험, 첫 취직의 기쁨,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 등 기쁘고 슬픈 이야기들이 삶에 얹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면 진지하게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 감사의 대표적인 예는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모두가 병이 나았지만, 오직 1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감사가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이 됨'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7장 17~19절에



따르면, 치유 받은 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명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질병 치유에서 멈췄지만, 감사하여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한 사람과 나머지 아홉 명의 차이는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로 구원을 얻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홉 명의 나병 환자처럼 단지 치유의 이야기에서 멈춰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을 받은 한 사람처럼 감사로 인한 복음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결국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감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불평불만의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교회 생활을 40년 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지는 않은가요? 민수기 광야 1세대들의 결론은 생명이 아닌 죽음이었습니. 광야 1세대 중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동시에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하나님과 나만 아는 특별한 은혜를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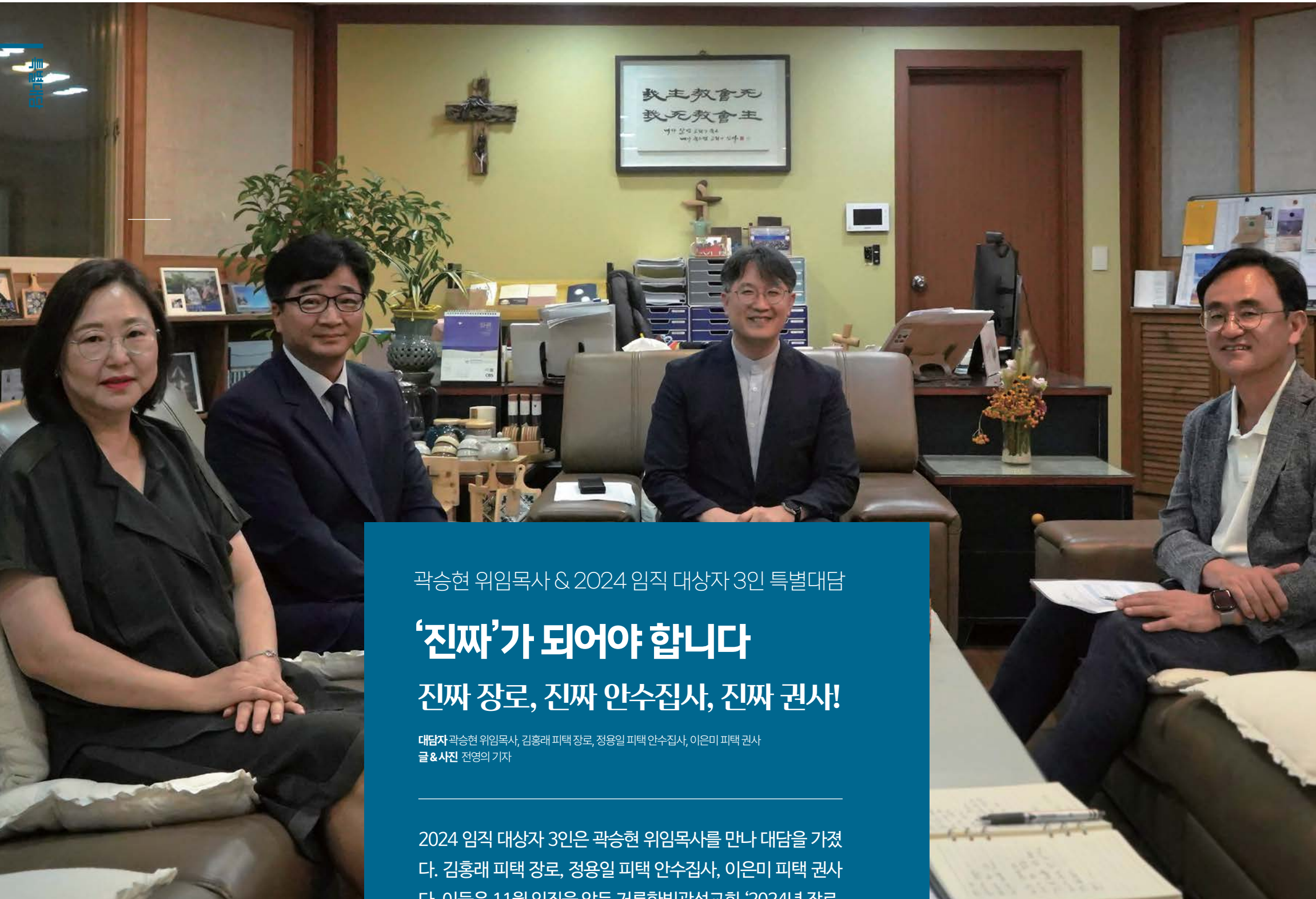
2024 AUTUMN Kwangsung Special



소명 CALLING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곽승현 위임목사 & 2024 임직 대상자 3인 특별대담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장로, 진짜 안수집사, 진짜 권사!

대담자 곽승현 위임목사, 김홍래 피택 장로, 정용일 피택 안수집사, 이은미 피택 권사
글 & 사진 전영의 기자

2024 임직 대상자 3인은 곽승현 위임목사를 만나 대담을 가졌다. 김홍래 피택 장로, 정용일 피택 안수집사, 이은미 피택 권사다. 이들은 11월 임직을 앞둔 거룩한빛광성교회 ‘2024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대상자’ 62명을 대표해 곽승현 위임목사와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나눈 이슈는 ‘임직자’, ‘거룩한빛광성교회의사역’, ‘우리의 미래’이다.

이슈 1 임직자

‘직분’ 부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

☞ 정용일 피택 안수집사

교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의 직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 직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곽승현 위임목사

꼭 필요하다?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에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었죠. 후에 ‘사도’의 의미가 확장되었지만 ‘사도’란 말을 처음 사용했을 당시는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열한 제자’와 예수님 죽음 이후 가롯 유다 대신 뽑은 ‘맛디아’까지 이 열두 명만을 의미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성도들을 교육하고 돌볼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목회자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의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분이 주는 의미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잘 나와 있듯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 이은미 피택 권사

‘권사’로 피택 받고 나니 감격과 부담감이 공존합니다. 섬김사관학교에서 훈련받으면서 계속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 곽승현 위임목사

직분을 받는 데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직분은 교회의 필요가 있어 만든 제도이고 반드시 그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여러분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부르신 까닭이 분명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코람데오’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면전에

✎ 곽승현 위임목사와 2024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대상자 3인

서'라는 뜻 아닙니까? 충성은 어떤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하는 양적인 차원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10가지 헌신이다 공허합니다.

☞ 김홍래 피택 장로

목사 안수 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 박승현 위임목사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2004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서원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 표현이고 목사안수식 날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막상 목사가 되니 진짜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时时때때로 자문합니다. '나는 진짜 목사인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임직 대상자 62명도 똑같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직분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살아내는 것이 직분자의 소명입니다.

이슈 2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사역

‘조이풀장년부’,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는 변화의 산물, ‘시니어 사역’에는 변화 필요

☞ 김홍래 피택 장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여 개혁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혁하고 싶는지 듣고 싶습니다.

☞ 박승현 위임목사

‘개혁’이라기보다는 ‘변화’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룬 것에는 ‘조이풀장년부’ 신설과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이고, 변화가 필요한 것은 ‘시니어 사역’입니다. 부임해서 보니 교회 사역의 중심 연령층이 대부분 60대였습니다. 10년 후를 대비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설한 것이 304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이풀장년부’입니다. 3040 세대는 교회의 허리입니다.

3040 세대를 준비한 교회는 살아남고,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4번의 절기 헌금 전액을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는 2020년에 첫발을 떼었지요. 지난 맥추절 헌금 119,441,148원 또한 모두 한부모, 다문화 가정, 노인, 장애인 등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모든 부서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10%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은 조금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4번의 절기 헌금이 총 5억 가까이 되니 꽤 크죠. 변화가 시급한 ‘시니어 사역’은 뒤의 질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 정용일 피택 안수집사

우리 교회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교회와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승현 위임목사

바이블하이킹, 알파 등 이미 많은 프로그램에 타 교회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교회 영성 훈련 프로그램 대부분이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현재 ‘원텐텐 가정예배’는 일산·파주 지역의 작은 교회 여러 곳에 프로그램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몇 교회 목회자가 ‘원텐텐가정예배PT학교’ 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작은 교회가 ‘원텐텐 가정예배’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선교사 파송 사역’ 또한 우리 교회의 인적·경제적 자원을 작은 교회와 나누고 있는 대표 사역입니다. 올해가 3년 차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사랑청년2부를 맡고 있는 왕하늘 전도사는 1호 교육선교사로 주안 의광성교회로 파송을 받아 그곳에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 이은미 피택 권사

우리 교회는 장애인 사역이 활발합니다. 이를 통해 목사님께서 바라시는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신지요? 한편 장애인 사역에 특화된 교역자가 부족한 실정이고, 교사 또한 장애인 사역을 위한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현 위임목사

우리 교회 장애인 부서에는 ‘사랑부’와 ‘농인부’가 있고, 사랑부에는 발

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200여 명, 농인부에는 언어·청각장애인 53명이 있습니다. 정성진 목사님 시무 때부터 우리 교회는 장터협동조합을 결성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여러모로 장애인 사역을 활발하게 펼쳐왔는데 어느덧 한계점에 달해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죠. 교회를 찾는 장애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그들을 품을 공

간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한 것 중 하나가 ‘장애인 시설 수탁 운영’인데 이는 점점이 더 필요합니다. 공간의 문제, 장애인 전문사역자 초빙, 24시간 장애인을 돌보는 그룹홈 운영 등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점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김홍래 피택 장로



☞ 정용일 피택 안수집사



☞ 이은미 피택 권사



☞ 박승현 위임목사



이슈 3 우리의 미래

삶의 지혜와 신앙의 연륜 갖춘 시니어는 교회의 보물, 시니어 사역 확대

☞ 김홍래 피택 장로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증가, 다음세대 미전도종족화 등의 사회적, 신앙적 급변화에 맞춰 우리 교회가 대응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승현 위임목사

가장 시급한 것은 ‘시니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시니어’라는 한 단어로 통칭하고 있지만 60대가 다르고, 80대가 다릅니다.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삶의 지혜와 신앙의 연륜을 갖춘 시니어는 교회의 보물입니다. 시니어이기 때문에 더 은혜롭게 펼칠 수 있는 사역이 여럿 있습니다. 시니

어에겐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이죠. 작은 교회에 가서 교사가 돼 주기도 하고, 체력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단기선교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시니어를 교육하고 파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이은미 피택 권사

인간의 노년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질병, 사별, 외로움, 죽음 등 만만치 않은 두려움으로부터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준비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승현 위임목사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노년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수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 교회로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찾아가야 합니다. 가서 말벗도 하고, 산책도 함께 하고, 음식도 나누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말벗팀’이 있지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정용일 피택 안수집사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인도하고 있는 각 가정의 제사장들에게 ‘이것만은 꼭 하세요.’ 또는, ‘이것만은 꼭 하지 마세요.’라는 형식으로 당부의 한 말씀을 하신다면?

☎ 박승현 위임목사

‘언행일치를 꼭 실천하세요.’ 말과 삶이 일치하고,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녀 신앙의 바로미터는 부모입니다. 종직자의 자녀 중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 없음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전가할 수는 없지만 그 책임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 김홍래 피택 장로

11월 임직을 앞두고 섬김사관학교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2024 장로, 안수집사, 권사임직 대상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박승현 위임목사

초심을 잃지 마세요. 임직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네게 준 그 직분에 대해서 너는 합당했는지? 직분은 교회가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때론 십자가가 무겁고 부담도 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깨워 살아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을 받으며

📖 김홍래 피택 장로



‘주님께서 왜 이때에 장로라는 직분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와 ‘청지기’라는 두 단어를 주셨습니다. ‘동역자(同役者)’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청지기(廳지기)’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시무 기간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동역자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기도해 주세요.

📖 정용일 피택 안수집사



안수집사의 직분이 주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함과 부담감입니다. 감사한 마음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부담감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드는 마음인 것 같아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재미있게’ 섬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 이은미 피택 권사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과 교회의 이끄심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걸어보고자 합니다. 어렵고 좁은 길이라도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계셔서 감사하며, 즐겁고 용기가 나기도 합니다.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의 말씀을 새기며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4 선한 사마리아인 맥추절 프로젝트

거룩한빛광성교회 맥추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역



•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맥추절 헌금을
흘려보낼 대상자를 지정

•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범위 지정	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10,083,000원
	다문화		
	노인		
	장애인		
	비발언덕	자립 준비 청년 지원	12,410,000원
	청년	청년창업 지원	290,000원
	환우	환우 가정 지원	7,974,700원
	작은교회	지역교회 지원	3,175,100원
교인 지정			17,830,000원
부서, 선교사, 형제교회 지정			6,370,000원
타 교회, 타 교인 지정			12,480,000원
금회 구제 사역			53,259,048원
합계			119,441,148원

2024 선한 사마리아인 맥추절 프로젝트:

플로잉데이를 통해 맥추절 헌금 전액(1억 1944만 1148원)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흘려 보냈습니다.

해외 선교사 7인의 내 생애 최고의 사역 1컷



아이작(이삭)의 기적

글 허정도 선교사(우간다)

심실중격결손이라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학교 선생님 레이첼의 아들 아이작(이삭)을 한국에 데려가 수술 시키고 우간다 돌아온 날, 공항에서 아빠 아벨을 만난 그 시간이 짧은 2년 4개월의 선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아이작의 수술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해 본 적도 없었고 나의 사역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너무 많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을 다 진행하셨습니다. 원래 우간다 병원에서 아이작을 인도 병원으로 데려가 수술시켜 준다고 했기에 우간다 사람들이 일하는 게 당연하고 저는 재정적 도움을 좀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의 일반인이 여권과 비자를 만드는 일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행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아이 심장의 구멍은 더 커졌고, 시간을 더 지체하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곳에 이메일로 문의하며 방법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어떤 곳에서도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섬기는, 아내 강정신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았고 그 일을 진행한 NGO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NGO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인맥도 없었지만 아이의 진단서와 사정을 적은 이메일을 보냈고, 그 단체에서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작의 수술을 위해서 협력하여 아이작, 레이첼, 그리고 제가 한국을 방문했고, 부천 세종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우간다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최근 우리가 사는 마을의 한 아이(아이작과 동일한 심장병)가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조그만 순종이 천하보다 귀한 아이를 살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선교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영적 생명뿐 아니라 육적 생명의 가치 또한 많이 부족한 우간다에서 육적 생명을 살리는 데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뻐했고,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무사히 도착해 아이의 아빠 아벨에게 아들을 보내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 열매를 향한 소망

글 송성진 선교사(중국)

제가 뽑은 최고의 사역 사진은 2010년 4월 북경 생원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한 사진입니다. 당시 중국은 가정 교회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목회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각지에서 북경으로 올라온 신학생들에게 성경 해석학, 조직 신학, 바울 신학 등을 2013년 8월 중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매 학기 강의했습니다.

강의 때마다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고, 제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이야기하면 서로 경쟁적으로 성경을 줄줄이 외우던 모습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신학생들의 일과는 '새벽 기도회 - 아침 식사 - 오전 강의 - 점심 식사 - 오후 강의 - 저녁 식사 - 저녁 기도회'로 빽빽한 일정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은 그렇게 3년을 합숙하며 훈련받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사역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앞두고 주변



에 사역과 안전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면 모든 긴장이 풀리곤 했던 그 모든 기억이 중국에서 철수한 지금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는 누구나 기회가 된다면 지난 사역 현장을 다시 방문해 보길 소망합니다. 당시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나 열매를 맺었는지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사진 속 신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는 중국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讚美主~!

하늘꿈나라교회를 있게 한 중보기도의 힘

글 김정조 선교사(팔라완)

이 사진은 거룩한빛광성교회 축구선교단의 2020년 팔라완 선교 사진입니다. 축구선교단원들이 2020년 1월 10일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우리 단원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선교교회가 세워지도록 열정을 다해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 정확히 7개월 후인, 2020년 8월 10일부터 교회 건축의 기초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꿈나라교회(HDNC)를 세워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

이 말씀이 선교 현장에서 상식이 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한 컷 사진입니다.

현재 실내 인테리어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멈추어 있어 아직 현당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현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국 쿠안탄 교회의 주일예배 후 성도님들과 함께

글 박석출 선교사(M국)

1995년, 총회 단기선교사로 M국의 사라왁주 쿠칭시 부근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쿠칭한인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원하기로 약속했던 교회에서 단 한 번도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완전히 탈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이 저의 첫 선교지요,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후 28년이 지나, 하나님은 부부라는 한 팀으로 저희를 다시 M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M국의 서해안 지역(페낭, 말라카 등)은 대부분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고 개방적입니다. 그러나 쿠안탄이 있는 동해안 지역은 이슬람의 샤리아 법으로 다스려질 만큼 극히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들도 그곳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유일하게 거주하고 있던 한 선교사님 부부도 종교경찰에게 쫓겨서 수도로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곳의 몇몇 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목회자 없이 간신히 버텨왔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교회 간판도 달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M국에 도착하기 이전에 저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쿠안탄에 처음 방문하기 전날 밤, 그곳이 정말 주님이 보내시는 곳인지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신음하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아프리카에서 M국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두 교회를 동시에 돌보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돌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아원 아이들도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신학교를 건립해서 목회자와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생수의 강이 흘러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고, 부름심을 발견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세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목숨 걸고자 하는 세대가 거대한 파도처럼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파송 3년 차 겨울, 집사님들과 함께

글 강성광 선교사(러시아)



선교 파송 3년 차인 2020년 1월 12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배 마치고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하얀 눈이 배경이 되어 '여기가 러시아야.'라고 말해주는 사진 같아서 참 좋습니다.

선교 3년 차 아직 부푼 꿈에 젖어 있고, 여기 계신 집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 하고 다짐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코로나로 사역에 장애물이 생기더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한러 관계의 어려움 등 상황의 막힘으로 사역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러시아 복음화를 꿈꾸며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첫 마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내 생애 최고의 사진으로 선정했습니다

비분고교회 예배당 준공감사예배

글 변영천 선교사(르완다)

2013년 2월에 르완다로 파송을 받아 지금까지 르완다장로교와 협력하면서 현지 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만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사역을 꼽으려면 예배당 건축 지원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2024년 6월에 비분고교회가 새 예배당 준공 감사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르완다 정부는 2018년에 새로운 건축법을 시행하면서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약 7천 개의 교회와 예배당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폐쇄된 교회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어 건축법에 맞는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재정적 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예배당이 폐쇄된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지 못하면 장기간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 자연스럽게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6월에 거룩한빛광성교회 12교구 단기선교팀이 르완다 현지 교회들을 방문해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비분고교회는 그때 방문한 교회들 중 하나였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건축이 중단된 예배당을 보고는 바로 건축 현금을 비분고교회에 전달했고,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권사님 한 분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 예배당 완공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분고교회가 새 예배당을 완공하여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뜨겁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새 예배당을 건축하지 못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유치원 졸업사진을 찍으면서

글 김한주 선교사(아프리카)

갓 5년 차 선교사가 되던 해에 사역하던 뉴비전학교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졸업사진과 각 반 단체사진을 찍었다.

선교사라는 호칭이 버겁기도 하고 점점 커가는 사역이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짓누르던 시절, 아침마다 “티쳐(Teacher) 한 주.”라고 부르면서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그 시기를 지나 지금에 있을 수 있었다. 선교사라는 정체성도 흔들리



고 다른 문화-언어에 적응하는 데 힘겨워서 생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 선교지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 것은 이 아이들이었다.

지금은 이 아이들 대부분이 뉴비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졸업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끔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감사와 기쁨이 차오르곤 한다. 마냥 신나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꿈을 꾸며 자라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사회에 나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 선교사를 받아 들여주고 사랑해 준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런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 낯설기만 한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따라 주었던 이 아이들을 사진으로만 보아도 아련한 추억으로 미소 짓게 해주어 감사하고 기쁘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사랑으로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영혼 살리는 일엔 국적 불문, 나이 불문! 김태선 권사

글 전영숙 기자



⌘ 전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섬기고 있는 김 권사가 중보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이듦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꿈과 희망을 지닌 이에겐 그 나이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10년 전 봤던 모습보다 더 젊어진 듯한 김태선 권사. 그와의 이야기 속에 그 비결을 알게 됐다. 궁금하다면 찬찬히 따라와 보시길.

김 권사와의 인연은 초등5부 교사를 섬길 때 시작됐다. 그때 부장을 맡았던 김 권사에 대한 내 기억은 열정은 넘치나 체력이 약해 늘 어딘가 아팠다는 것. 그런 그가 생기 넘쳐 보였다.

“에이, 무슨 말씀을... 아직도 골골해요. 주께서 사역을 이끌어가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늘 감사가 넘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솔직히 초등5부 부장을 맡았을 땐 3년을 미루다 미루다 담당했던 거였어요. 원래 제가 도망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김 권사가 올해 맡은 사역은 전도위원회 위원장이다 세계선교위원회 팀장, 지구장까지 그 무게가 엄청나다. 그런데 김 권사의 표현을 빌자면 ‘안 도망가고 묵묵히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이론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일이 맡겨지면 뒷걸음치기 일쑤였는데 이번엔 달랐다. 일을 맡고 기도로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한 일꾼을 그에게 보내주셨다. 선교 주간 때 방문한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할 동역자를 구하는 글을 여전도회 단체 특 방에 올리니 자진해 돕겠다는 손길이 이어진 것.

김 권사가 신앙생활을 해온 지는 40년이 넘었다. 하지만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선교에 발을 딛게 된 것은 뜻하지 않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2012년경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 차가 공중으로 뿔뿔이 떨어져 큰 사고로 목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잠시 한국에 방문한 태국의 이한동 선교사 또한 사고로 입원했던 것. 사모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슴속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남편과 의논을 했더니 흔쾌히 동의해 줬어요. 당장 세계선교위원회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자는 큰 뜻을 품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지금의 때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 목장 나눔의 기쁨을 선사했던 목원들이 친구 목사 이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째 되던 해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한다고 결심을 했죠.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사탄이 나타났는데 허가 말려 들어 기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순간 하나님이 대적 기도할 수 있다고 힘을 주셔서 큰 소리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렸거라’ 기도했는데 껌 순간에도 너무 생생했어요. 제 외침에 놀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니 ‘그래, 우리 교회 세우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16년 9월 태국에 매꾸앙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2017년 12월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남편이 폐암으로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김 권사의 마음에 심어진 선교의 꿈나무는 아프리카를 향해 가지를 뻗었다. 2021년 이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해 교구별 선교지로 ‘르완다’가 뽑히자 김 권사는 교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는가 보다 싶었다고. 그리고 올해 6월 르완다에 골조만 남겨져 있던 교회를 재건축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돈 덕분이었다. 서원했던 비용보다 건축비가 적게 들어 브라질의 구약성경 번역에 보탬을 주었고 또 다른 선교지에도 힘을 보탬 생각이다.

“전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시작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말만 앞세우지 말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죠. 늘 노력하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김 권사는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하

게 지낼 수 있는 시기이다. 아들, 딸이 잘 자라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 걱정도 없겠다, 체력이 약해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으니 몸보신하며 건강만 챙기면 될 일이다. 그런데 김 권사가 요즘 꾸준히 운동하며 체력을 키우는 데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마음껏 원하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다. 골골대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 싶어서. 주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 살리는 일에 더 힘쓰고 싶단다. 목장 예배드리는 것조차 꺼려 하던 목원들이 이제는 교구 식당 봉사에도 적극 나서서 하는 변화된 모습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죽어있는 목장 살리는 일, 믿음 생활 중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간증 거리가 한 보따리는 된다는 김 권사, 젊음의 비결은 바로 그 보따리였다. 기쁨으로 따랐더니 넘치는 감사 보따리.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둘씩 풀어갈 때 또 다른 역사가 이뤄지리라.



⌘ 선교헌금으로 태국에 세워진 매꾸앙교회 현판

« 태국 매꾸앙교회 첫 예배에 참석한 김태선 권사(정성진 목사님 옆)

ISSUES & TREND

ZERO WASTE
제로웨이스트

I

재활용 너머 프리사이클링
(PreCycling)

글 유미호

II

제로웨이스트 실천 사례

— 높은뜻하늘교회의 제로웨이스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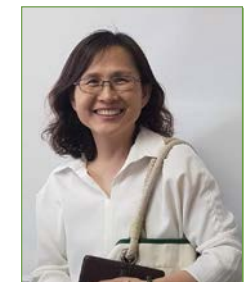
글 서미영

— 환경, 기후 위기 등은 신앙과 관련된 문제

글 이수연

재활용 너머 프리사이클링
PreCycling

글 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일상을 위협하는 물건 쓰레기

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일까? 그것들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은 어딜까? 물건의 마지막은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버린’ 후에 시작된다. 버려진 물건에 새 생명이 주어지거나 재활용되는 과정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크고 작은 쓰레기 산으로 종결된다.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쓰레기의 46%는 고소득 국가에서 나온다. 이들 나라 인구가 약 1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9%에 불과한 저소득 국가 사람들에게선 오히려 6%만 발생한다.

문제는 고소득 국가의 발생량이 많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쓰레기가 각자의 자리에서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쓰레기마저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어, 부국이 빈국에 쓰레기를 떠넘기기 시작했다. UNEP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쓰레기의 90%가 넘는 4100만 톤이 부국에서 빈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이 쓰레기를 수출하고, 가나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수입해 왔다.

게다가 이 같은 쓰레기 산은 눈에 보이는 육지에만 있지 않다.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바다로 흘러들어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바다에 부영양화가 일어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지역인 데드 존(Dead-Zone)으로 변하고 있는데, 1960년대 세계적으로 45곳이던 것이 지금은 70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전국 235곳에 120만 톤 규모의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다(2020년 기준, 환경부).

부국에서 빈국으로 수출되는 각종 쓰레기





제로웨이스트
실천하여 건강한
지구에서 살아요

재활용품도 최소한으로! 프리사이클링

따라서 쓰레기 문제 해결은 발생하기 전 단계의 원천 감량, 즉 프리사이클링(Precycling)에 달려 있다. 이는 제로웨이스트의 핵심개념 중 하나로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행동을 말한다. 물건 구매나 사용하기 전, 그것의 필요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재활용품조차 최소로 나오게 하기 때문에, 단순한 감량을 하는 것을 넘어 자원 순환을 극대화하고, 생활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은 대량 구매로 개별 포장 쓰레기 줄이기, 최소 포장제품 선택하기,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 사용하기, 리필 가능한 제품 선택하기, 물건 수리해서 사용하기, 정크 메일 수신 거부하기, 품질 있는 내구성 제품에 투자하기, 중고품 쓰기, 지속 가능 브랜드 지원하기 등 다양한데, 크게 보면 ‘9R’로 설명할 수 있다.

9R의 프리사이클링과 창조세계 돌봄

프리사이클링의 핵심 실천은 ‘9R(Refuse, Reduce, Reuse, Recycle, Rot, Repair, Rethink, Repurpose, Replace)’로 이야기된다. 이는 제로웨이스트의 기본원칙으로 ‘R’로 시작하는 각 단어의 의미를 일상에서 살려내면,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먼저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회용품, 과도한 포장 ‘거절하기(Refuse)’는 물질 사용의 첫 단계부터 불필요한 쓰레기가 발생

넘쳐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쓰레기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다. 지금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서울 마포의 하늘공원은 원래 쓰레기 산이었다. 이후 이용하고 있는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도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드림파크 야생화공원을 조성했지만, 이곳 역시 제1 매립장과 제2 매립장이 포화가 되어 사용이 중단됐고,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제3-1 매립장도 머지않아 쓰레기 반입이 종료된다. 수도권 자원순환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으나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는 건설 폐기물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도 이제는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해 재만 매립해야 한다. 물론 소각재로만 매립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쓰레기를 태우는 게 최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쓰레기를 태워도 잔재물은 남고,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부터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소각장 건설로 인한 환경 오염, 건설 비용, 소각장 위치 문제 등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다. 또 생활 쓰레기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50%인데, 그 가운데 플라스틱의 물질 재활용률은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지 않게 한다. 필요만큼만 구매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해 소비 ‘줄이기(Reduce)’나 다회용 용기나 제품을 선택하는 등 물건을 여러 번 ‘재사용하기(Reuse)’는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발생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 고장 난 제품을 버리지 않고 ‘수리하기(Repair)’나 유리병을 화분으로 쓰는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용도 변경하기(Repurpose)’, 그리고 일회용 대신 실리콘 물건(컵, 면봉, 도시락 등)으로 제품 ‘대체하기(Replace)’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한다. 구매 전 꼭 필요한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고하기(Rethink)’는 생산과 유통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쓰레기가 덜 발생하는 제품과 시스템을 ‘재설계(Redesign)’ 하는 것은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 커뮤니티 가든 조성하기, 재생농업 실천하기, 토종 씨앗 심기와 같이 자연 자원 ‘재생하기(Regenerate)’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생태계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도 나오는 쓰레기조차도 그냥 버리지 않고, 잘 분리 배출해 ‘재활용(Recycle)’하거나 ‘퇴비화(Rot)’ 함으로, 쓰레기 없는 일상, 쓰레기 없는 교회, 제로웨이스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창조세계를 온전히 지키고 돌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리사이클링을 돕는 교회공동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사 24:5>” 세계 곳곳의 쓰레기 산은 우리 인간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탐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소비를 한 대가다. 우리가 이제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롬 12:2>” 하여,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재활용품이나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모아 필요한 이웃에게 제공하거나 지역 재활용센터와 협력체계를 만들어보자. 공동구매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교회시설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 친환경 에너지 활용률을 높여보자.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먹거리를 공동구매함으로써 재생농업을 지원하거나, 교회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거나 지역 농업인과의 교류를 가져 보자. 의류 교환 및 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구매와 폐기를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재활용해 보자. 녹색제품 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성도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생태적 삶을 장려해보자.

이 모든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선한 일이지만 그 영향력이 바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10>” 때가 이르면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다.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하자



높은뜻하늘교회의 제로웨이스트 이야기

글 서미영 권사(높은뜻하늘교회)



‘녹색으로 물든 교회’ 이야기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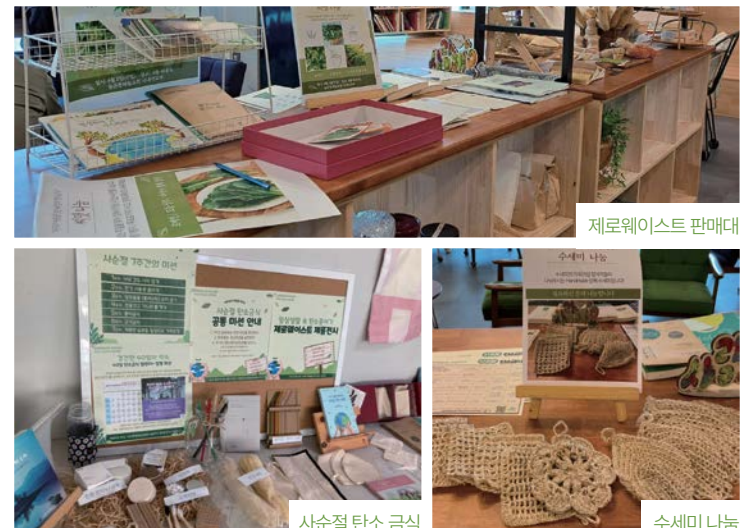
높은뜻하늘교회의 ‘녹색으로 물든 교회’ 이야기는 2021년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던 중, 담임목사님과 국내선교부소속의 몇몇 사람들이 먼저 온라인으로 만나 기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잃어가는 생태계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씩 배워가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녹색으로 물든 교회’라는 환경주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경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그린엑소더스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환경교육센터의 유미호 센터장님과 워크숍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교회가 속한 지역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녹색으로 물든 실천들을 실행에 옮겨 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이컵 없는 교회 카페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왔지만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 광고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머그컵과 텀블러를 모아 교회 카페에 비치하고 카페 한쪽에는 사용한 컵을 직접 씻어 정리할 수 있는 소독기를 두도록 동선을 배치했습니다.

초반에는 성도님들이 불편함을 조금 느꼈지만 곧 적응하며 협조해 주었고 이제는 교회 카페에서 종이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즐겁게 컵을 씻는 어린 초등학생들, 손이 안 닿는 유치부 친구들의 컵을 씻도록 도와주는 집사님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르신까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각자 사용한 컵을 씻는 모습에서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창조한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번 전교인수련회에 가서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텀블러를 가져왔고 사용 후 세척할 수 있도록 컵세척기를 대여해 사용했습니다. 또한 미처 가져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 지역자치단체에서 수거까지 해주는 다화용컵을 준비하여 종이컵 없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간식도 쓰레기를 줄이려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모두의 경험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카페에 녹색으로 물든 제로웨이스트 판매대를 만들었습니다.

친환경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용경험이 없는 분, 그리고 구매가 어려운 분들을 위함입니다. 창조세계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제품을 소개하고 함께 사용해 보는 경험을 쌓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무인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경험을 넘어 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환경선교를 위한 의미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궁금한 점을 나누는 노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써주시기도 하고 각자의 의견도 적어 놓으며 녹색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창조세계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활동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아크릴 수세미를 대신한 삼베 수세미 뜨기의 날을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두 개를 떠서 하나는 본인이 사용하고 하나는 기증하며 필요에 따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훈훈한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플라스틱과 비닐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판매대 아

래에 종이백, 쓰지 않는 보자기, 에코백을 놓아두었고 누구든, 언제든지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놓아두는 물물교환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읽고 나누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로웨이스트 판매대 아래에는 환경도서를 비치하여 성도님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고 북스터디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진행하는 사순절 탄소금식에 참여하며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친환경용지에 안내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의 사순절 탄소금식을 시작하기 전, 환경 영화를 보고 감독과 대화를 나누고, 생태와 평화의 탐방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철새들을 관찰하고 습지를 걸었습니다. 신음하는 생명을 함께 마음에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환경주일에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한 <우아한 걷기-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하는 한걸음 걷기->라는 플로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작은 씨앗 나눔을 통해 상추씨, 무씨, 꽃씨 등을 나누어 주고 씨앗을 뿌립니다. 교회의 옥상 텃밭을 활용한 기후미식회를 열어 우리가 찾아야 할 자연미각을 느껴봅니다. 하늘, 바람, 흙, 날아가는 새들, 다양한 모양과 빛깔로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작은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박한 일상이 모여 점점 더 녹색으로 물들어 가는 교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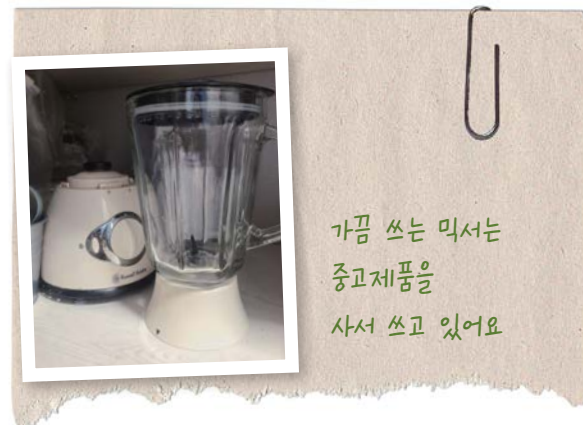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 실천 환경, 기후 위기 등은 신앙과 관련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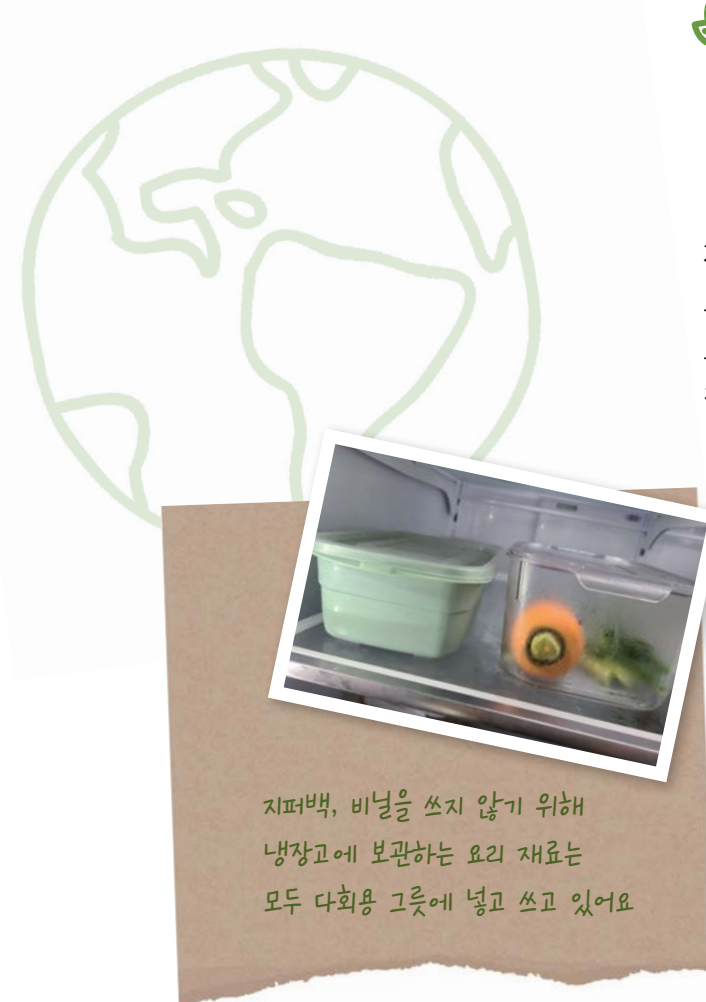
글 이수연 집사(거룩한빛광성교회)

예전부터 환경보호에 관심은 많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편리함과 빠른 것을 선호하고 있는 모순덩어리인 나 자신을 알게 된 것은 분리배출 문제로 남편과 티격태격할 때였다. 그동안 분리배출을 할 때 적당히 분류하고 있었던 나에게 철저히 분류해야 한다는 남편의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에,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말뿐이었던 나를 직면하게 되었다.

환경, 기후 위기 등은 신앙과 관련된 문제라고도 한다. 창조신앙을 가진 자는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삶으로 그 고백을 살아내는 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환경에 감사하고 피조물을 존귀하게 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생각해볼게 된다. 그래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시작하게 되었다. 별로 대단한 것은 없고 남들보다 다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여러 곳에서 받은 장바구니를 한곳에 모아서 가족들이 마트나 편의점에 갈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는 물질 소비의 감소,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물질 순환, 유해 물질(플라스틱 등) 사용 감소가 주된 내용이다.



물질 소비의 감소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기에 텀블러와 장바구니는 기본이다. 늘 습관적으로 티슈와 물티슈를 갖고 다녔는데 손수건을 갖고 다니고 가정에서도 물티슈는 거의 쓰지 않는다. 과대 포장된 것이나 쇼핑백, 비닐류는 받아오지 않으려고 애쓴다.



물건을 사기 전에 고민을 충분히 하고, 대체 가능한 것은 사지 않는다.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 같은 종류가 있다면 사지 않고 필요한 것도 몇 번을 고민해 보고 사게 되었다. 또 새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가끔 쓰는 것은 당마켓 같은 사이트에서 중고 제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유해 물질을 쓰지 않는 것은 쓰레기에서 오는 독성을 zero로 하는 것이다. 일회용품은 기본으로 쓰지 않고 주방에서 랍, 지퍼백 비닐을 쓰지 않기 위해 실리콘 덮개와 요리 재료를 넣는 다회용 통을 사용하고 있다. 배달음식은 줄이고 외출 시 일회용 식기를 쓰지 않기 위해 수저를 가방에 넣고 다닌다.

자발적 불편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내 삶과 소비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소망한다.



휴지, 물티슈 대신 들고 다니는 손수건과 다회용 천 티슈

스물하나, 서른다섯

글 방성빈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고등부)

첫 번째 사역지, 대양교회



첫 번째 사역지, 대양교회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347, 대양교회. 앞마당에서는 고양이와 뱀을 잡고, 뒤뜰의 텃밭에서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는 그 가운데 위치한 성전에서 주일에 배가 드러졌다. 주일예배가 드려지는 동시에 성전 옆 컨테이너 건물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21살 된 전도사가 성경책 하나 들고, 어찌 어찌 준비한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나눔을 가졌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봉고차를 타고 다들 어디론가 놀러 갔다. 지역마다 다르겠으나 충청남도에서는 방방으로 불리는 걸 타러 가기도 했고, 음료수 하나씩 물고 뒷산을 오르기도 했다. 해가 지면 아이들을 한 명씩 집에 태워다주고는 집에 돌아온 21살 전도사는 가장 좋아하는, 라면 한 봉지 끓여 먹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학기 중이면 주일에, 방학 중이면 평일까지 아이들과 삶을 함께했다. 21살 전도사는 첫 사역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기억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24살이 된 전도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에 갔고, 40개월간 소위, 중위를 거쳐 27살에 전역했다. 3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동료들과 함께 지내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업무상 교회에 가지 못하고 산에 갇혀 있어야 하는 현실을 참 힘들어했다고 한다.

두 번째 사역지, 예담교회

27살에 전역하고 1년을 놓고 싶어 했던 철없는 전도사는 5개월만 놓고 28살이 되어 두 번째 사역지로 가게 됐다.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65-2, 예담교회. 시내에 위치해서 앞마당에 고양이도 없고, 텃밭도 없었던 그곳에서 중·고등학생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야 했으나 첫 사역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아이들을 사랑했던 습성이 남아 있어 여기서도 아이들과 놀기에 바빠 진학이 더뎠다. 핑계 같다. 하지만 산에 갇혀서 번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행복했다고 한다.

28살 전도사는 이곳에서 한 중·고등부 부장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장님의 꿈은 중·고등부 모든 아이가 전부 찬양팀이 되어 예배 때 단상에 올라가게 하고 청중을 없애는 것이었다. 모든 걸 아이들 스스로 찾아서 해내기를 바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걸 지원했다. 학생회를 조직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역을 정하게 했고, 찬양팀을 조직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곡과 연습 시간 정하고 예배를 준비하게 했다. 부장님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중·고등부는 점점 살아나서 80명까지 든든하게 서 가는 부서가 됐다. 28살 전도사는 31살이 될 때까지 이 부장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참 행복해하며 많이 배웠다고 한다.



두 번째 사역지, 예담교회

세 번째 사역지, 찬동교회



세 번째 사역지, 찬동교회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거수지길 7, 찬동교회. 대양교회 뒤뜰에 텃밭이 있었다면, 찬동교회 옆에는 밭, 뒤에도 밭, 앞에도 밭이 있었다. 31살이 된 전도사는 이 시골에 아이들 10명이 있는데 도무지 전도사를 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찬동교회로 향했다. 도착해서 본 아이들은 1살부터 12살까지로 구성된 천사들이었다. 열정 넘치는 선생님 부부를 만나 부서 이름을 아동부에서 '예수님의 아이들', 예아부로 바꾸고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열정 넘치는 선생님 부부와 함께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했다. 31살 전도사는 이곳에서 열정이 있다면 못 할 일이 거의 없음을 배웠다고 한다. 사랑한 만큼 아이들이 더 왔지만, 교회의 장소와 여건이 어려워 더 받지 못할 무렵, 33살이 된 전도사는 세 번째 사역지를 떠나, 네 번째 사역지로 향하게 됐다.

네 번째 사역지,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앞으로 큰 도로가 나 있고, 식당이 많으며, 교회 옆에 대형카페가 있는 모습은 33살 전도사에게 충격을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1살부터 12살까지 모아서 양육했는데 초등3부, 10살만 모아서 양육한다는 것도 참 새로웠다고 한다. 그렇게 초등3부, 3040 조이플장년부, 목회비서를 거쳐 현재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35살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넘쳐서 행복하다고 한다. 거처온 부서의 부장님들이 모두 좋았고, 함께 사역함이 기쁨이었으며, 항상 배울 점이 있어 강제로 인재 양성을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고등부와 청소년 사역, 학원 사역을 맡고 있는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 스물하나부터 서른다섯까지 항상, 행복했다고.



네 번째 사역지, 거룩한빛광성교회



⚡ 직원과 봉사자가 어우러진 미디어팀

나는 예배자입니다

광성미디어팀

글 고예님 청년기자 사진 이종수 청년기자



1 미디어팀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나요?

크게는 영상팀과 음향팀 부서로 나눌 수 있고, 영상팀 안에는 영상, 자막, 촬영 파트가 있습니다. 미디어팀은 직원과 봉사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는 자막 봉사자 30대~50대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시고, 카메라 봉사자는 주로 10대~20대 청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분들은 금요일예배와 주일예배, 그 외 부흥회나 중계가 필요한 교회의 주요한 행사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봉사자분들은 젊은 나이에 많이 비블 텐데 항상 열심히 봉사해 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미디어팀이 바라는 점이나 나아갈 방향에 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디어팀의 카메라 봉사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숙련도가 쌓이기 때문에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사용하는 다른 대형교회보다 더 퀄리티가 있는 중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적어도 경기 북부 교회 중에 미디어를 제일 잘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동시에 다른 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미디어팀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 장기적으로 시대에 맞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이에 맞춰 꾸준히 공부를 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 미디어팀은 고등학생 때부터 카메라, 음향으로 봉사하던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 관련 학과로 진학하면서 더욱욱 성장하여 꾸준히 봉사하거나 파트로 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저희 팀에 들어와 봉사하며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영상팀

3 화면 전환 시간이 짧는데 몇 초 정도로 화면을 전환하나요? 짧게 전환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일 2부, 3부 예배에서는 카메라 봉사자들이 운용하는 3대의 카메라와 본당에 거치되어 있는 5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중계합니다. 주로 중계의 문법에 따라 사이즈와 앵글을 고려하고 찬양의 속도에 따라 화면 전환 시간을 달리합니다. 신나는 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전환하기도 하지만 가끔 중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화면 안에 들어올 때도 빠르게 전환합니다.

4 영상 부서에서 가장 보람차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있나요?

예배를 섬긴다는 면에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는 일 중 보람찬 일을 꼭 말씀드려야 한다면 중계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예배와 집회에 대한 몰입도가 올라갈 때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 설교와 찬양을 유튜브에 올리고 모든 행사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릴 때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보람을 느끼면서도 어려웠던 점은 실수를 하면 즉각적으로 티가 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티가 난 실수는 목사님들을 비롯해 성도님들에게도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더욱 집중해서 압박감을 이겨내며 중계 속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보다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며 미디어 일을 맡고 있습니다.



⚡ 예배 시간
방송실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카메라를
조정하는 촬영 간사



⚡ 자막과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방송실 모습



자막팀

5 자막팀은 예배 진행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자막팀은 찬양단, 봉헌송, 특송, 찬양 가사와 헌금, 장례 광고 등 화면에 자막으로 나가는 모든 자막과 PPT 송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찬양 축제 등 행사에 나가는 자막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6 예배를 드릴 때 자막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부담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진행 상황에서 실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실수에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초반에 성도들의 편의상 송출했던 자막이 이전 예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담감보다 책임감이 더 커진 것도 사실 이죠. 실제로 방송 중에 민감한 키보드의 미미한 충격으로 인해 나가지 말아야 하는 자막이 찰나에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처를 하는 것보다 자막을 빼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종 약속 없이 갑작스럽게 찬양 인도하시는 리더들이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편집상 바로 가사 찾기가 힘들어서 리더들이 순서를 바꾸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동시에 본당에서 무전으로 항의가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찬양단의 가사 담당자들로부터 송품을 받아 철저히 체크해 나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자막팀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종종 찾아올 수 있지만 보람찬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보람차셨나요?

보시는 분들은 기본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맞춤법, 띄어쓰기, 넘기는 속도, 송품대로의 진행 등이 모두 맞물렸을 때 흐뭇합니다. 그리고 찬양단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도 보람을 느낍니다. 종종 예배 중에 급작스럽게 찬양이 추가될 때가 있는데 미디어 전도사님을 비롯해 간사님들의 순발력으로 바로 대처했을 때와 인정받았을 때도 뿌듯했습니다.

음향팀

8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오는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해결할 수 있는 비상 대책 방안이 있나요?

이와 같은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죠. 배터리 부족, 무선전파 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로 마이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기 전에 미리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다른 마이크로 대체해서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음향팀에서는 음향 부스에 1명, 무대 보조 1명이 있습니다. 무대 보조 간사님께서도 무대 옆에서 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 음향팀에 섬기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님들의 무대가 있을까요?

무대에 선 성도님들의 그 모습 자체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성도님들의 예배를 돕는 자가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실력임에도 그 떨리는 목소리와 몸짓에 가사의 묵상과 그 진심이 전해져 회중들에게 더 큰 감동과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렵돈을 드리는 것과 같은 무대가 기억에 많이 납니다.

◀ 예배 시간 음향을 조작하는 모습



» 예배 시종일관 미디어팀의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는 사무엘 간사



‘2024 어와나 T&T 캠프’를 다녀와서

글 고은정 집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나 또한 ‘시간은 곧 돈’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아,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어와나 T&T 캠프’에 교사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고 모든 일상을 잠시 멈춘 4박 5일 동안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이들 앞에서 교사로 부르심 받은 축복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난 아이들 여섯 명과 한방에서 잠을 잤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면 나는 영어 수업에서 보조교사를 했다. 숙소에서 함께 잔 아이들이 아닌 다른 클럽원의 반 교사로 활동했다.

또한 클럽원들은 매일 점심, 저녁 식사 후 이번 캠프 주제 말씀인 ‘요한복음 14:16~31’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쓰고 암송한 후 교사인 내게 와서 확인을 받아야 했다. 노트에 말씀을 다 쓴 아이들이 수시로 나를 찾아왔다. 아이들의 노트를 검사하고 스탬프 찍어주느라 정말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곱고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맞추고 그들의 작은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이 시간이 내겐 몹시도 행복했다.

수많은 만남 가운데 어와나 캠프를 통한 만남의 축복

클럽원과 교사 모두 합쳐 총 800여 명과의 만남. 전국 각지에서 온 신앙의 친구들을 어와나 제자훈련에서 만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특히 존종과 배려로 서로 협력하며 아이들을 섬기는 전국 어와나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감동과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다음세대를 향해 기도하게 하신 축복

아침 8시 큐티로 하루를 연 3, 4, 5학년 학생들이 밤 12시까지의 모든 일정을 소화해 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캠프였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된다. 매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다.

“선생님 그냥 눈물이 계속, 계속 나요.” 하던 친구, 아무 말없이 껴안고 울던 친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 아이들의 그 귀여운 얼굴이 지금도 떠오른다. 다음세대 그리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던 아이들. 그 어떤 기도보다도 뜨거웠다.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 예수님은 어떠실까? 그 마음이 헤아려진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지만 이를 돕는 이가 그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심을 믿으며 기도한다.



1



2

1. 우리반 아이들과 함께
2. 캠프 기간 내내 오전에는 Bible, Nature, Game, Across America를 주제로 각 세션별 원어민 수업에 참여했다



성경 컬러링

도안을 예쁘게 색칠하여 자신만의 컬러링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완성작을 사진 찍어 『겨자씨』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4점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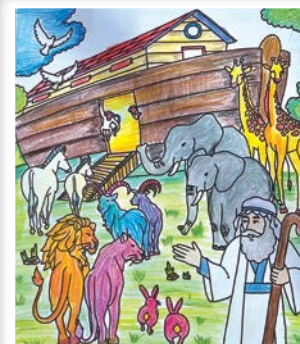
바벨탑



‘성경 컬러링 이벤트’ 선정작 4점

지난 호 이벤트 '노아와 언약의 방주로 모여든 동물들' 색칠하기에 13명이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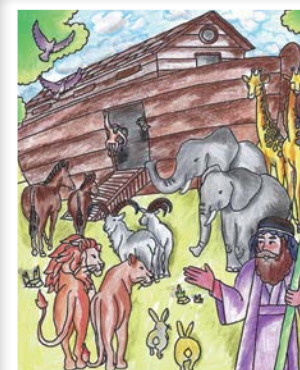
그중 선정작 4점을 소개합니다.



“색칠하기를 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 시간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분주함 속에서 선택받은 동물들을 보며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선택받은만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몸과 맘을 하나님께로~~”

김청남 집사(혜성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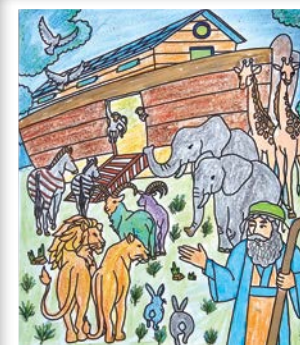
“하나씩 하나씩 색을 얹으며
어느새 마음의 평안이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미향 집사(거룩한빛광성교회)



“색칠 시작해서 3시간을 내리 그렸어요.~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김현영 집사(거룩한빛광성교회)



“짐통더위를 식히기 위해 성경 컬러링을 색칠하기 시작했는데 금세 더위가 물러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색칠이 잘 안 되었는데도 뽑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자 권사(혜성교회)



강보

글 김종식 관장(세계기독교박물관, www.segibak.or.kr)

아기 예수 탄생 장면에는 강보 이야기가 두 번 나온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강보로 싸고,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강보에 싸여 있다고 알려주었다. 갓난아기가 강보에 싸여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천사는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단서로 베들레헴, 구유 외에 강보라는 단어를 알려주었다.

강보의 헬라어 원어는 ‘스파르가노오’인데, ‘작은 천 조각’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하탈’은 붕대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15세기의 ‘성전에 바쳐지는 예수’라는 그림을 보면, 아기 예수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것처럼 좁고 긴 강보에 싸여 있다.

유대인들이 아기를 강보로 돌돌 마는 이유는 추위와 나쁜 세균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사탄의 침입을 막기 위한 영적인 목적에 있다. 유대인들은 ‘사탄은 원을 뚫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강보로 돌돌 말았던 것이다.

강보는 보호라는 기능 외에 환영의 뜻도 가지고 있다. 에스겔서에 보면 환영받지 못한 예루살렘을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겔 16:4>”라고 했는데,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반갑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면 강보로 싸기 전에 내다 버리는 관습이 있었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강보에는 히브리어로 ‘할레비’라는 아기 이름과 “하나님이 너를 기르실 것”이라는 축복문이 기록되어 있다. 성서 시대에는 예비 어머니들이 태교를 하면서 강보에 아기 이름과 성경 구절을 수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라는 이름을 강보에 수놓았을 것이다. 예수는 ‘구주’라는 뜻이므로 목자들은 그 이름을 읽으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World Christian Museum of Korea

www.segibak.or.kr

꿈.담

꿈을 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다음세대

꿈꾸는 다음세대

학생

꿈을 담는 가정

가정

꿈을 지켜주는 담장

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꿈꾸는 다음세대

꿈꾸는 꼬마 (꿈꼬)

영아(0~3세)
유아(4~5세)
유치(6~7세)

꿈꾸는 어린이 (꿈린이)

초등학교
1~6학년

꿈꾸는 세대 (Dream Generation, 꿈젠)

꿈젠 중등부

14세~16세
중학생

꿈젠 고등부

17세~19세
고등학생

≧ 꿈.담 ≦ 유아부

작은 예수, 사랑스러워 가는 아이들

글 정은숙 기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눅 2:52>

유아부는 2024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하신 7가지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생명의 떡(요 6:35), 세상의 빛(요 8:12), 선한 목자(요 10:11), 포도나무(요 15:5)이신 예수님을 통해 따르고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다.

유아부는 매월 암송 말씀을 외우고 밴드에 영상을 올려 매달 마지막 주와 첫 주에 아이들과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암송 카드에 도장을 찍어주고 있다. 예배 시간에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예배자도 있고 쑥스러운 내향적인 예배자도 있지만,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망울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보여주지는 않아도 잔잔한 호수처럼 예배자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대견함을 느끼는 시간이다.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주일예배 시간, 아이들이 함께 또박또박 암송 말씀을 외우는 모습을 보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라는 성경 말씀

이 떠올랐다. 사랑스러워가는 예수,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들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작은 예수들이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작은 예수들이 교회의 이름처럼 거룩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갈 미래를 꿈꾸어 본다. 유아부를 섬기는 양요한 전도사는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아이들이 있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아이들이 있으며, 성령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아이들이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유아부의 귀한 아이들이 작은 예수로 자라가길 소망해 본다.



≡ 율동과 찬양을 열심히 하는 어린이들



≡ 생명의 떡(코너 학습)



≡ 라이트룸(코너 학습)

≧ 꿈.담 ≦ 사랑어린이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글 정은숙 기자

오감으로 이해하는 예배 시간

사랑어린이부 예배가 궁금해서 참관하는 분들이 생겼다. 새로운 선생님과 아이들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요? 설교는 어떻게 전하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사랑어린이부는 단순히 청각에 의존하는 설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오감으로 생생하게 설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설교 주제라면, 그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안아주며 “너는 참 소중해, 너를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식이다.

친구들이 가장 즐거워한 예배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내용의 설교 본문으로 큰 바구니 안에 물고기 풍선을 숨겨두고 모두 한 배가 되어 물고기를 찾으러 다니는 활동을 했던 예배였다. 사랑어린이부 변영현 전도사는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방법의 차이일 뿐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사랑어린이부 친구들의 가슴에도 깊이 남을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

특수사역? 한없이 사랑스러운 평범한 부서입니다

주변에서는 장애인 부서를 특수사역이라며 대단하다고 한다. ‘특수’라는 단어가 왜 붙었을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특별하고, 각별히 유의할 것이 필요해서일 것이다. 예배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은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사랑부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평범한 부서이고, 장애라는 단어를 걷어내고 아이들을 바라보면 한 아이 한 아이의 장점이 보인다. 찬양을 좋아하는 예은이, 율동을 좋아하는 진환이, 씩씩하게 대답하는 지용이...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겠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

역해야 할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사랑부 친구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그들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겉으로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말씀에 반응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은혜와 감동을 받곤 한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능한지 알게 되면 깜짝 놀란다. 배우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배우고 나면 배운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스펀지 같은 친구들이다. 사랑청소년부, 사랑청년부의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사랑부 친구들은 어릴 때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일터와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한다고 한다. 이 친구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다.



≡ 사랑어린이부 어린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말씀에 반응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고 변영현 전도사는 말한다

≡ ‘축복의 통로’ 게임에 열중하는 사랑어린이부

≧ 꿈담 ≦ 초등 2부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이야기를 들어요!

글 김현일 전도사(초등 2부)

장애인지원과 통일선교주간을 맞이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어 봉사하시는 장경숙 집사님과
탈북민이신 김경민 집사님을 초청해
그분들의 삶과 마음 깊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으로 교감하고
또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1



2

1. 수어 봉사자 장경숙 집사님.
초등 2부를 찾은 장경숙 집사님은
농인들의 어려움을 알려 주고
수어 봉사의 보람을 들려 주었습니다
2. 탈북민 김경민 집사님.
북한에서의 어려움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들려 주셨습니다

≧ 꿈담 ≦ 초등 6부

열정 만점 초등 6부

글 박성훈 전도사



성경 퀴즈대회

상반기 말씀을 돌아보며 성경 퀴즈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워십 하는 아이들 모습

열정 만점 초등6부는 싱어와 악기, 워십으로 매주
예배의 문을 엽니다. 갈수록 성장하는 영성과 실력이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생일 축하파티

매월 첫째 주는 생일자인 친구들을 축하해 주며
작은 선물을 전달해 줍니다.

여름성경학교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기도할래요’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기도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를 갖춰가는 시간
이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서
2박 3일의 일정을 보내며 서로 믿음 안에서의 교제와
교회에 대한 추억을 쌓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 꿈담 ≦ 중등부

2024 꿈젠 여름 필리핀 단기선교

글 태경환 학생기자

일시
2024년 7월 30일(화) ~ 8월 3일(토)

장소
필리핀 카비테 지역

사역
어린이 예배 및 피딩 사역,
청소년 집회, 전도사역 등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꿈젠 단기선교팀이 필리핀에 다녀왔다.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가서 장판도 깔고, 페인트칠도 하고, 전도하며, 찬양과 경배를 했다.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꿈젠 단기 선교팀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것을 받고 돌아왔다.



≡ 꿈.담 ≡ 고등부

사진으로 보는 고등부 수련회 기쁨, 은혜, 다가감, 그리고 고등부

글 최아인 학생기자



1 수련회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3 '죄와 성' 강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화제인 '트랜스젠더'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름을 물놀이로 즐기며
우애를 쌓아가는 고등부.



4 하루하루 예배가 끝날 때마다 '오늘의 은혜'를 작성하는 고등부.
이때 인상 깊은 감상문을 작성한 사람은
다음날 간식을 받을 수도 있다.



5 그렇게 모인 '오늘의 은혜' 포스트잇.



그레비티 찬양팀이 인도하는
저녁 집회 시간.
세상과 천국의 오작교가
되어 주는 듯하다.



6



7

열린 저녁 집회 이후
맛있는 야식 타임!



8 마지막 날, 아침 예배 이후 지난 이틀을 돌아보는 소감문을 작성한다.
이 소감문은 몇 주간 주보 마지막 면을 장식하게 된다.



9

마지막으로 찰칵!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학원 등의 일정 때문에 첫째 날 일정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지만 그만큼 다음날 일정을 열정적으로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죄와 성' 강의 시간이었는데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성에 대한 죄'와 최근 올림픽으로 화제가 되었던 '트랜스젠더의 참여에 의한 불공평함과 남녀 신체적 차이'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듣고 느낀 생각을 소감문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세상에서의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가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수련회에서 좋은 주제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AGAIN, 1907! ④

평양 신앙 각성 운동

기획 김형수 기자

특별기획 AGAIN, 1907! 연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소중한 자료와 빛나는 글을 연재해주신 장신대학교 임희국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지난 겨울호부터 이번 가을호까지 1907년, 가난했던 이 나라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성령 각성 운동(평양 대부흥)을 돌아보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굳게 믿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함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AGAIN, 2025! 이 땅에 한 번 더 성령의 불길이 드높게 치솟아 오르기를 열망하며 연재를 마칩니다.

AGAIN, 1907! ④ 평양 신앙 각성 운동

글 임희국(장로회신학교 명예교수)



1 1907년 평양 신앙 각성 운동이 전국으로 파급

평양 신앙 각성 운동이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그 연유는 평양에 목회자를 양성하는 장로회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각처에서 온 목회자 후보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수업에 참석했다. 신학교는 이들을 가르쳐서 출신 지역 교회 현장으로 파송했다. 이들을 통해 평양에서 절정을 이룬 신앙 각성 운동이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훗날, 평양을 가리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1907년 4월 1일. 겨울 방학이 끝나고 봄 학기의 개학을 맞이한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정에서 학생(목회자 후보생)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들의 인사말이 “성령을 받았느냐?”였다. 성령 체험은 다가오는 6월 말에 졸업하면 목회자가 되어 교회 현장에서 일하게 될 신학생들의 관심사였다. 학생들은 이에 개학 첫 주간 매일 저녁에 기도회로 모였고, 그다음 주간에는 사경회로 모였다. 이 기간에 75명의 재학생 대다수가 성령을 체험했다.

지난 1월 평양 시내 여러 교회에서 일어난 신앙 각성 운동에서 그러했듯이,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지은 죄에 대하여 몸서 괴로워하며 그 죄를 고백하며 뉘우치고 회개했다. 그리고, 죄 용서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했다. 이들의 신앙 각성이 불씨가 되어 전국 각처의 교회로 지퍼졌고, 그 불씨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횃불로 활활 타올랐다. 첫(제1회) 졸업생 7명의 졸업장에는 복음의 ‘횃불’이 상징으로 새겨져 있다(예, 길선주의 졸업증서).

1. 평양 장로회신학교 전경
2. 길선주(제1회, 1907년 졸업)의 졸업증서. 교장과 교사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2 토착 교회(The native Church)의 형성

평양의 신앙 각성 운동은 조선(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세운 목표대로 토착 교회의 형성이 순조로이 진행되게 했다. 선교사 방위량(W. N. Blair)은 “우리는 조선(한국) 교회의 (설립)을 원하는 것이며, 미국 교회의 설립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1896년에 평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를 방문한 미국 장로교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 스피어(Robert E. Speer)는 본국으로 귀국해서 47쪽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한국에서 토착 교회가 정착되는 상황을 상술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들(미국 선교사)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조선인)의 교회를 설립해야 한다. (...) 우리는 모세와 예언자에 관하여 선포하는 자들이고,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며, 이 교회는 결코 제도로서의 교회 곧 미국의 제도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란 어떤 이념이나 제도로 세운 교회가 아니며 사랑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세우는 교회를 뜻한다.”

이 말을 풀이해보면, 선교는 미국 교회의 제도와 이념(신학)을 선교 현장으로 가져가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증언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새로운 토양(토착 문화)에서 새로운 형태로 자라나는 토착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토착 교회의 형성은 구체적으로 선교사들이 조선(한국)인 교회 지도자에게 교회의 치리권을 넘겨주고 독립교회(Independent Church)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1907년 9월 조선(한국) 독립 장로교회가 성립하는 ‘독(립)노회’가 조직되었고, 평양 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이 목사 안수받아 장립했다: 길선주(40세)·양전백(38세)·서경조(58세)·한석진(41세)·송인서(40세)·방기창(58세)·이기풍(40세). 이들 가운데서 목사 길선주가 평양 장대현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정리: 1907년 평양 신앙각성운동은 조선(한국)이 이제 더 이상 외국(미국) 장로교의 선교 현장으로 머물지 않고, 이제부터 조선(한국) 장로교회가 -세계 장로교회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로교 교단으로 조직되는 마중물이 되었다.

3 ‘AGAIN, 1907!’, 무엇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1907년 평양 신앙 각성 운동은 그 당시 해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査經會) 기간에 일어났고, 저녁 기도 모임에 성령이 임재하여 역사하는 가운데 회중들이 지은 죄를 통회, 자복, 회개하면서 거듭남의 기쁨과 희열을 체험했다. 이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과 화해와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3. 장대현교회
담임목사 길선주
(앞줄 중앙),
선교사 마펏
(길 목사 오른쪽),
그라함리(왼쪽),
제직들(1907)
4. 한국 장로교
제1회 노회 참석자
기념 촬영(장소는
평양 장로회신학교)

이제, ‘AGAIN 1907’은 ‘AGAIN 성경으로’ 나아가야 할 것

1907년 평양 신앙 각성 운동을 새기면서, 117년이 지난 오늘 ‘성경, 곧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운동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독일 종교개혁자 루터(M. Luther)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쳤다. 그 말씀은 3종적인데,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성경을 기반으로 오늘 새롭게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 성경과 설교의 중심에서 그 말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즉, 하나님 말씀은 성경-설교-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루터는 교회의 표지가 하나님의 말씀(설교, 성만찬 집례)에 있다고 가르쳤다.

한국 교회(개신교)는 14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 기독교’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평신도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치고 실천하기보다는, 목회자가 풀이해주는 성경에 경도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나의 신앙을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미자립’ 상태가 되었고,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숙함이 중단된 ‘신앙 미성숙’ 상태를 보이게 되었다. 마치 궤종시계의 추가 끊임없이 좌우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반복하듯이 기계적으로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관습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정체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 나를 위한 그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나/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질문(개인 삶, 사회정치, 역사문화, 생태환경 등)을 던지고, 자신의 질문에 담겨 있는 고민과 고뇌를 하나님 앞에 (coram Deo) 내어놓고서 -구약 창세기의 아담처럼- 성경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성장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신주의가 인류의 사고방식과 삶을 지배하는 것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은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근대 세계의 산업화 이래 인류를 지배해 온 철기 문명이 기후 위기를 가져왔다. 이 문명의 발달을 위해 인류는 화석연료(석탄, 석유)로 기초 에너지를 조성했다.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산업 사회가 이루어졌다. 인류는 굶은 철근으로 집을 높이 짓고, 쇠붙이에 인간의 의지를 새겨 넣어서 20세기 철기 문명을 건설했다. 이 문명을 쌓아 올린 인류는 발전 이데올로기의 마술인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에 심취했다. 철기 문명은 지구 환경을 오염시켰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구 온난화인데 남극과 북극에서 빙하가 녹고 있고, 높은 산에서 만년설이 녹고 있다.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하자 남태평양 섬(투투섬 등)과 세계의 일부 도시들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철기 문명은 죽음의 문명이자 죽음의 문명으로 비판받고 있다.

문명의 전환을 요청하는 오늘. 문명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이고, 문명의 전환은 인간의 전환인데, 그 전환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이다. 이 회개의 길을 성경이 증언하며 인도하고 있다.



5. 한국 장로교
제1회 노회
(평양, 1907년 9월).
이 노회에서
장로회신학교
첫 졸업생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노곡교회

글 김용기 기자 사진 노곡교회 제공



노곡교회 초창기 모습

‘마을로 가자(막 1:38)’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노곡리 사람이 되렵니다. 처음에는 왜 저를 여기로 부르셨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기 목사’로 불러주시며 애정을 주시는 주민들로 인해 행복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교회 김만석 담임목사를 만났다. 거룩한 빛광성교회와 협약을 맺고 부임한 김 목사는 인심 좋고 인상 좋은 교회 카페지기가 되어 있었다.

노곡리로 들어서는 초입에 있는 노곡교회는 70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 복음화의 중심 교회이다. 노곡리는 원래 북한 땅이었다. 전후 남북 간의 협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남한 땅으로 편입되면서 북한으로 가지 못한 주민들이 모여 형성된 마을이다.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마을에는 영국과 캐나다 군인이 주둔했고, 캐나다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교회가 형성되었다. 인근에는 7~8개의 70~75년 된 교회들이 있는데, 캐나다 선교사가 순회하며 성경 공부를 하던 곳이 모두 교회로 발전하며 연천 지역 복음화의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다.

“당시에는 80%의 주민들이 교회를 나왔다고 해요.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임진강에서 모래와 자갈을 가져와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도 그 당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거룩한빛광성교회 농촌 봉사 활동, 마을 전도 계기 되어

김만석 목사는 “주민 수가 감소하고 젊은이가 떠나면서 교인 수도 또한 줄어들고 있었는데 거룩한빛광성교회의 도움으로 주민들이 다시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거룩한 빛광성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1박 2일 동안 노곡교회에서 농촌 봉사 활동을 펼쳤다. 150여 명의 교인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와 미용, 방충망과 엘이디 전등 교체 등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며 전도에 나서 주민들의 칭찬을 들었다.

“봉사활동 이후에 주민들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면 목사님인 줄 알고 있다며 반가워하고, 아기가 목사로서 와서 좋으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라는 김 목사는 “성인 예배자가 50여 명으로 늘었고,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어린이 숫자가 5명에서 16명으로,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도 5명으로 늘어 권사님들이 매우 좋아하신다.”라고 강조했다.

농촌교회이지만 다음세대에 대한 복음화의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김 목사는 부모가 외국인인 자녀들이 많아 소통이 어렵고, 놀이 문화가 없어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아이들을 보며 이 아이들과 부모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노곡교회는 내년에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교육전도사와 선교사를 파송 받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활성화하고, 교회에 놀이터를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 머물고 놀며 공부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다.

농촌 아이들 방과 후 공부 도우미 단기 봉사 환영

“주변에 학원이 없어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을 담당해 줄 봉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김 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주일에 배를 마치고,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방학을 이용해 단기간 봉사를 해줄 분들이 있으면 언제나 환영”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김 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와 노곡교회의 관계는 도시의 대형교회와 농촌 교회의 상생 모델”이라며 “충북 진천과 충주의 농촌 목회 경험을 토대로 지역과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야경이 아름다운 노곡교회 카페



노곡교회 전경



노곡교회 주일예배



동네 사랑방 노곡교회 카페

2024 드림비전스쿨

글 임주아(광성드림학교 8학년 누리반)

≡ 완전학습캠프 수료 후 8학년 단체사진



≡ 8학년 완전학습캠프 모습



≡ 완전학습캠프 중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저녁 시간

광성드림학교 중등과정 8학년을 다니는 학생들은 드림비전스쿨에 참여한다. 그동안 드림비전스쿨은 뉴질랜드로 해외 이동수업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개편되어 새롭게 탄생했다. 책임감, 협력, 섬김에 대한 집중 훈련을 통해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드림비전스쿨의 목표에 따라, 학생들은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과 2박 3일간의 완전학습캠프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을 기르고 강릉 독서캠프, 울릉도·독도 캠프를 통해 협력과 비전에 있어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여러 가지 비전스쿨 프로그램 중, 나는 자신의 공부를 온전히 해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자기주도학습과 완전학습캠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기주도학습은 방과 후 9시까지 학생들이 모여 스스로 자기만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완전학습캠프는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공부에 몰입하며 새로운 공부를 맞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내가 약한 부분인 기하를 처음부터 공부하며 총 4권의 문제집을 다 풀었다. 끝나고 나서 느껴진 엄청난 뿌듯함과 성취감을 잊지 못한다. 완전학습캠프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공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드림비전스쿨이 매우 기대된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우리 8학년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드림비전스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록 남은 일정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성장할 8학년 드림이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 완전학습캠프 3일자. 캠프 기간 동안 나는 어려워 하던 기하를 처음부터 공부하며 총 4권의 문제집을 다 풀었다

≡ 저자와 기획자가 함께한 『오십,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북토크 현장



≡ '나무사이' 창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떠난 솔이네 가족 여행



Scars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됩니다!

글 우주희 기자

인간 백신, 곽수진 집사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상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회복이 된다. 그런 상처는 많지가 않다. 오히려 인간 백신이 되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인간 백신 곽수진 집사를 만나러 그의 일터가 있는 장항동을 찾았다.

최후의 처방전, 하나님

어린 시절은 어려운 가정환경과 비관적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꿈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10년 전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떠나보내고, 죄책감 속에 더욱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인생의 목표만을 좇으면서 살았다. 힘든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듯 결혼과 출산을 선택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자신의 우울한 모습 속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부모의 그릇만큼 클 수 있고 부모의 꿈만큼 꿈을 꿀 수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고, 이러다간 아이가 자신처럼 될 것만 같아 상처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명상과 심리상담까지 갖는 노력을 다해 보았다. 그러나 어떤 노력을 해도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남편은 최후의 처방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녀를 교회로 데리고 왔다.

뜨거운 만남과 눈부신 회복

몇 군데의 교회를 다녀보기로 하고 첫 교회로 우리 교회를 찾은 것이 2023년 1월 셋째 주 금요일이었다. 별다른 믿음도 없던 시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방문했던 교회에서 받았던 말씀 카드가 유난히 큰 의미로 다가왔고 7년 동안 지갑 속에 간직하며 지내왔다. 그런데 첫 예배 시간, 바로 그 창세기 12장 1~3절의 말씀이 설교 본문이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상으로 삼고 있는 직장을 떠나야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았다. 창립 멤버로 시작해 많은 성공을 이뤘기에 직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놓을 수 없는 우상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새 신자로 등록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의심 속에서 던지는 천 개의 질문에 천 개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해 갈 무렵, 48기 알파 성령수양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건 내가 처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 안의 깊은 상처를 마주하게 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랜 시간 동안 울지도 웃지도 못하면서 살았던 저를 보게 하셨어요. 아버지를 외롭게 돌아가게 한 사

람이 나라는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를 비롯해 견디기 어려운 모든 상황을 내가 받을 벌이라 생각하며 참아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모든 상처를 만지시며 '그건 네 잘못이 아니란다. 너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안다. 이제 울어도 된다, 다 울고 나면 이제 웃으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전 10년 치의 울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고, 평생 처음 느껴보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 버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순종했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달리는 '나무사이'호

'떠나라.' 하시면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씀일까? 해답을 얻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매일 새벽 다섯 시에 큐티로 주님을 만났다. 어느 날, 『생명의 삶』 9월호를 펼쳤는데 그 속에 있던 숲 사진을 보자 '나무사이'라는 출판사의 이름이 떠올랐다. 하나님은 이름부터 먼저 주시고, 1인 출판사라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인도해 나가셨다. 저자가 없는데 어떻게 책을 낼지 고민하던 무렵에는 운명처럼 저자와 연결되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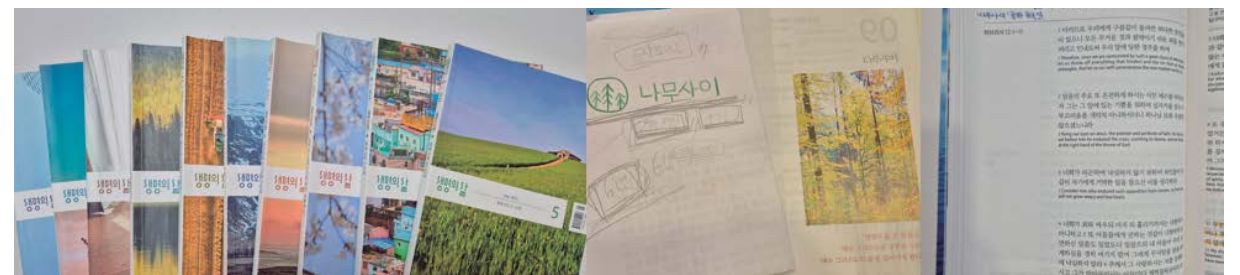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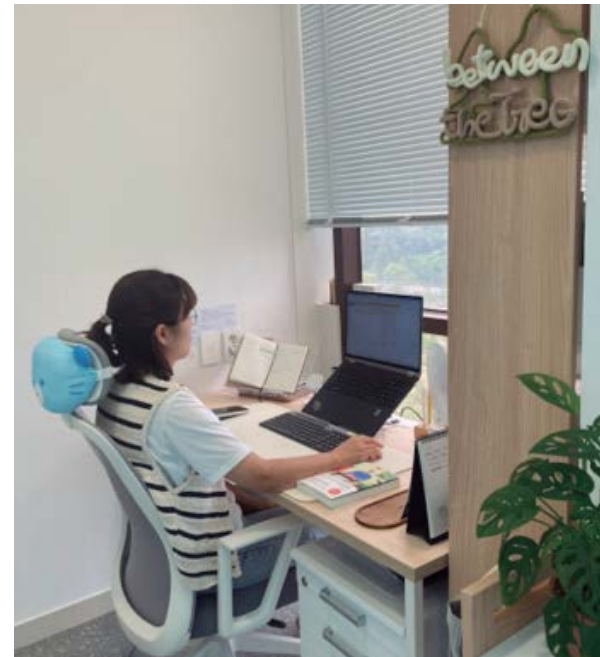
≫ 교보문고 자강원 출판사에 선정된 '나무사이' 첫 책 인증샷

던 그녀에게 번개처럼 첫 책의 제목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날로부터 이틀 만에 책의 기획안이 똑딱 나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뒤 한 달 만에 이뤄진 일이고, 그 후 작년 11월에 기존 직장을 잘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새 책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상처받은 치유자

첫 책 『오십,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는 그렇게 올해 5월 초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다. 성공에 대한 자극적인 메시지 대신 꿈, 희망, 사람을 이야기한 책은 출간 3주 만에 온라인 서점 종합 1위를 하는 등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자신을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 얼마나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싶으셨는지 느끼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그 진심에 반응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치유한 것처럼, 네 아픔을 약재 삼아 울고 있는 나의 양들을 위로하고 내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상처받은 치유자 곽수진 집사는 오늘도 그렇게 주신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간다.

≫ '나무사이' 대표 곽수진 집사 사무실 풍경



≡ 2023년 7월부터 한 QT 책들과 QT를 하며 출판사 이름을 짓고 등록을 했던 시간의 기록

㉿ “자, 주먹 쥐고 손을 펴서~” 모든 학생이 함께 하는 체조 시간



아름다운 노년들의 학교, 광성노아스쿨

글 임보미 기자

종이랑 펜 / 찾는 사이에 / 쓸 말 까먹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中-

노년의 일상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책에 나온 웃픈 이야기다. 쇠약해져 가는 신체 기능으로 인해 이전엔 거뜬히 해낼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점차 힘들어지는 노년의 일상. 하지만 배움의 기쁨과 소통하는 즐거움까지 포기해야 할까? 여기, 아름다운 노년들이 만들어가는 즐거운 배움이 가득한 학교, 광성노아스쿨이 있다.

아름다운 노년들의 배움터, 노아스쿨

거룩한빛광성교회 노아스쿨은 ‘노년은 아름다워라’는 슬로건으로 2004년 시작되어, 2024년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초 85명으로 시작한 교육 과정이 현재까지 누적 인원 3000명 이상의 학생이 수료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따라 지역사회 어르신의 여가시간을 취미 계발과 실력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돕고,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과 기독교 문화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구성된 열린 배움터다.

노아스쿨은 1년 과정으로 매년 3월에서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에 진행된다. 65세 이상이면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학기별로 약 350명 정도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악기연주, 미술, 댄스, 스포츠 등의 문화 강좌와 함께 생일잔치, 테마여행, 영화 관람, 주제특강, 미용봉사 등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심식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 “찬양하면 아름다워진답니다.” 고운 음색만큼이나 아름다운 자태의 가스펠반



㉿ 언제나 청춘! 노아스쿨 댄스반의 신나는 공연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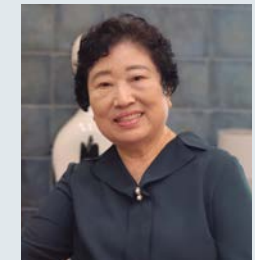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생기 넘치는 배움의 자리.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아스쿨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한 어린아이의 눈망울과 다를 바 없다. 매 수업 시간을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노아스쿨의 학생들은 입을 모아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고 말한다.



“18년 동안 노아스쿨의 찬양, 성경, 컴퓨터 등의 수업에 참여하면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친목을 다지며 서로 의지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헌신적으로 섬겨 주시는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응구 학생, 86세)



“노아스쿨은 노년의 놀이터입니다. 학생이 되어 또래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교제하고 나면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워요. 너무나 유익한 시간,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남분옥 학생, 73세)

사명과 보람으로 섬기는 인생 마지막 교사

설립 초기부터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선자 권사를 비롯해 20여 명의 강사와 스태프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성장을 지켜보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섬김에 임하고 있다.



㉿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노아스쿨 강사와 스태프들

“노아스쿨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입학하신 어르신 모두 영원한 학생이지요. 저희는 어르신들의 마지막 교사라는 사명으로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얼굴 보며 함께 멋진 노년을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노년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학교, 노아스쿨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배움과 소통의 즐거움이 가득한 노후를 보내길 기대해 본다.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올림픽

글 박길환 기자(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발전 전공)

지구가 매일 석양을 뒤로 하며 자전할 때 드리워지는 어두움은 늘 한결같지만, 태양 반대편 지구촌의 밤은 해를 거듭하며 더욱 다채워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북아의 밤 위성사진은 단연 눈길을 끈다. 20세기 후반 이후 한반도 북측과 남측의 명암이 교차하며 특히 수도권과 동남권의 불빛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중심으로 카페 줄조명처럼 늘어선 불빛은 마치 샹들리에를 연상시키는 듯한 중국 동부 해안의 야경과 묘한 조화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위성사진이 포획되기 전인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의 한반도 전체 야경을 현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당시 한반도의 야경은 명암이 뚜렷이 대조되는 지금보다 빛 자체는 많이 약했을지언정 더 고른 불빛들로 드문드문 수 놓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동해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불빛이 약한 북녘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불빛은 오히려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그 속도는 여전히 한국이 일본에 비해 빠른 편이다. 냉전과 휴전이라는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곳곳이 한반도 남쪽의 밤하늘을 밝혀온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역사는 한반도의 야경 위성사진이 스탠포드대 존스(Charles Jones) 교수의 『경제성장론』 표지 이미지나 최근 런던정경대(LSE)에서 출판된 『거시경제학』 본문 이미지의 일부로 쓰일 만큼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제 K-Pop, K-Food, K-Content(s) 등의 문화예술 분야와 스포츠 분야에서도 그 역량은 지구촌 각지에서 팬덤을 만들어내고 있다. 냉전의 말미, 동서 화합의 장으로 세계인들의 추억이 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한국은 민족국가로서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 21세기 첫 월드컵인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그리고 반세기 만에 최소 수준의 선수단(144명) 파견으로도 목표(종합순위 15위)를 훨씬 상회한 상위권 성적(종합순위 8위)을 낸 2024년 파리올림픽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량의 이미지는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파리올림픽 개막 직후 일본 산케이신문의 자매지 '유칸후지'의 칼럼에서 이러한 선수단 규모에 주목하며 이는 '침

한(沈韓)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은 과잉일반화일 뿐이라고 웃어넘기면서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를 목표로 했던 한국이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인구 전반의 역량이 약해진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시장환율 기준)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최빈국 수준인 66달러에서 2023년 3만 6194달러로 약 500배 증가하며 대만(3만 3365달러)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일본(3만 5793달러)의 1인당 국민총소득을 넘어섰다고는 한다. 그러나 이는 엔/달러 환율이 2024년 7월 초 162엔까지 오르며 장기화하고 있는 이른바 '슈퍼 엔저' 현상 속에서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같은 원화의 국민소득이 달러로 표기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촌향도(離村向都)가 가속화되던 1960년대 중반 이후 대도시권에 집중되었던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가 역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피부양자 비중 증가로 인한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로 고스란히 역으로 바뀌는 역동적인 과정에 있다. 경제성장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빨랐던 만큼, 이미 진행된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와 향후 경제성장률의 저하, 그리고 2030년경 본격 시작될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속에서 급속한 증가 추세인 피부양비는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커다란 숙제이다.

비록 스포츠(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이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을 보며 선수단의 규모, 즉 인구 규모가 이러한 가운데 1인당 국민총소득을 꾸준히 높이는 데 있어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함을 상기할 수 있었다. 사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국민총소득을 총인구로 나누어 산출되는 만큼 같은 국민총소득이라면 오히려 총인구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한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성장은 인구(L), 자본(K), 기술(T)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장 이상적인 성장은 기술(T)이 투입(요소)이라 불리는 인구(L)와 자본(K)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국민총소득을 더욱 빠르게 높일 때 일어난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1994년 11월 한 국제전문지(Foreign Affairs)에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신화'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당시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던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인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의 경우 기술 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인구 또는 자본의 '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은 종이호랑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미국 등의 선진국 기술 추격에 성공하면서 성장세는 둔화되더라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처럼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이지만, 규모의 경제에 기반해 연 10%에 달하는 성장률을 상당 기간 보일 수 있어 주목할 만한 반면 국민총생산에서 결국 미국을 추월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3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의 진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정점이던 2021년을 전후로 20조 달러를 넘어 성장하던 미국의 국민총생산의 턱밑에까지 다다랐으나 이후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낮아진 경제성장률과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이후 잃어버린 30년으로 비견될 만큼 경제발전의 추진력이 저하된 상황이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이라는 대국의 견제와 전략적인 교역 가운데 4마리 종이호랑이들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요소 투입이 주도한 경제성장이라는 폴 크루그먼의 지적은 여전히 뼈 아프다. 최근 유연화되고 감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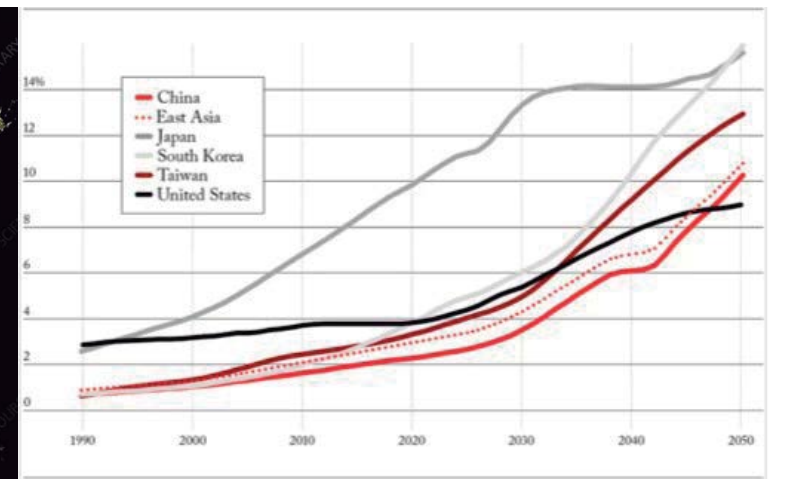
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약 2,000시간의 노동을 통해 멕시코와 함께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의 노동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과 대도시에서 이러한 투입을 전략적으로 집중시키며 기술개발(R&D)에 있어서도 선진국 추격에 상당 부분 성공했고 전 국토에 걸친 교통 인프라 구축과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으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가전, 조선 등에 있어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의 협력 및 열린 혁신의 부족과 만성적인 노사갈등 속에서 아래 그래프(Revista de Prensa 2024)와 같이 (65세 이상이 아닌) 이제 80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볼 경우에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은 위기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국민총생산 성장률, 고령화율, 인구증가율 등 지표 측면에서 일본을 20년 차로 따라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보유한 거주자본소통을 제외한 총자산이 약 10조 달러로 약 25조 달러인 일본(국토 면적 3.7배)과 세부적으로는 많은 다른 경제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전쟁 이후 500배에 달하는 소득 성장에 기여했던 주역들은 이제 노인으로 따뜻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24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선행학습으로,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젊은 부부들은 직장과의 병행으로, 장년은 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50년을 함께 바라보며 파리올림픽에서의 선전처럼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웃 국가나 전문가의 평가를 반면교사 삼아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여 K-문화와 함께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해 본다.

⌞ Northeast Asia at Night



⌞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동아시아 전체, 미국의 80세 이상 인구 비중. (출처: Revista de Prensa, 2024년 5월 8일)



‘고맙습니다’ 릴레이

기획 김형수 기자

1. 허훈 장로님은 김청수 교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느 분에게 ‘고맙습니다’ 릴레이 바톤을 넘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서 제가 주로 교육부에서 봉사를 해 와서 청년 교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4부에 청년 교사가 여러분 계신데 모두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그중 한 분께만 마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에게만 전할 수 있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김청수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김청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가족 중 혼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1세대 신앙인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1세대 신앙인으로서 제가 청년 시절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이 생각나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던 게 우선 기억납니다.

김청수 선생님은 칭찬할 점이 참 많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결석하는 일이 없으며 매주 주보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공과 공부도 열심히 준비해서 반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으며 반 학생들과도 친밀하게 지내는 물론 기성세대 교사들과도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게 잘 어울립니다. 나이 많은 교사를 보면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교사 회의에도 잘 참석하고 있으며 초등4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통독 녹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또 오전에 교육부 봉사가 끝나면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는, 정말로 모든 이에게 너무나도 귀감이 되는 청년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할 일이 많을 텐데 김청수 선생님은 주님의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흔히 얘기하는 MZ세대와는 조금 다른, 저 같은 노인이 볼 때 너무도 고마운 기독교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고맙습니다’ 릴레이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선생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청수 선생님, 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최고입니다.

2. 김청수 선생님은 김영란 부장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초등4부 김영란 부장님께 고마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란 부장님은 참 견고하신 분입니다. 그 견고함을 보고 있노라면 저의 신앙까지 더욱 견고해지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무엇이든 직책을 맡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는데 부장님은 그 무거움을 기꺼이 감당하시면서도 늘 그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예찬반을 맡아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가르쳐주시더니 이제 초등부 부서의 부장님으로 묵묵히,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선생님을 보며 주님이 우리 초등4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곤 합니다.

활달한 아이들을 모두 감당하기엔 교사 인원이 충분치 않음에도 언제나 선생님들의 안위를 섬세하게 살피시고 기도해주시는 부장님 덕분에 저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



⋈ 허훈 장로님과 김청수 선생님



⋈ 김청수 선생님과 김영란 부장님

니다. 매번 성경학교 때마다 성실히 준비하시는 부장님을 볼 때면 그 헌신에 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언젠가 교사 기도회를 하며 신앙적인 어려움을 고백했을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셨던 부장님의 모습이 종종 떠오릅니다. 성인이 되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의 믿음을 의심한 적도, 그래서 흔들린 적도 많았지만 늘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초등4부 선생님들, 그중에서도 영란 부장님이 아주 든든하게 옆에 계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부장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초등4부에 불러주시고 부장님을 통해 깊은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초등4부 부장으로서 온 힘 다해 힘써 주시는 김영란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3. 김영란 부장님은 김정숙 권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제게 ‘고맙습니다’ 릴레이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김청수 선생님께 또한 감사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을 나누면서 마음을 전할 분을 떠올려보니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번 기회에는 그분들 중에서 통일선교위원회 김정숙 권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일터와 사역하는 부서에서 섬김을 하느라 예전처럼 자주 뵈면서 일상을 나눌 기회가 적지만 간혹 가끔 멀리서라도 권사님 얼굴을 뵈게 되면 반가운 마음에 언제나 미소가 지어집니다. 교회 열방기도팀에 소속되면서 권사님을 처음 뵈었는데 언니가 없는 제게 권사님은 마치 친언니 같았습니다. 포근하고 다정하게 챙겨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권사님은 항상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나 자신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것에 서툰 제가 열방기도팀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만나면서 권사님과 같은 팀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기도과 말씀 묵상으로 서로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10여 년을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초등부 교사로 봉사와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형편상 주저하면서 낙심하고 기도할 마음도 접은 제게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시며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길과 환경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저는 그때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기억하며 15년 차 교사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섬김과 노력에 항상 고운 말로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권사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욱 신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도 권사님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보며 선한 영향력으로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의 글을 적으며 권사님과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게 이런 귀한 분을 보내주시고 감동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 김정숙 권사님은?

‘고맙습니다’ 릴레이는 겨울호로 이어집니다.



⋈ 김영란 부장님과 김정숙 권사님

전도위원회 군 선교 현장

사진 이종수 기자

군부대를 방문한 거룩한빛광성교회 전도위원회는 장병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멋진 공연을 선물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전도위원회에는
14개의 전도 팀이 있습니다**

월요전도팀, 화요전도팀, 디모데전도팀(수),
목요전도팀, 말벗팀, 호스피스발마사지팀,
디모데전도팀(토), 지역교회세우기팀,
전도학교운영팀, 전도지원센터,
전도중보기도팀, 마하나임찬양팀,
일산장날팀, 119응급구원영점팀





청년광장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holylightkwangsungksn





청년부 찬양팀 'visionary'

글 김다빈 청년기자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비전을 가진 선구자, 비전을 품고 방향성을 선도해 나가자는 의미를 품고 활동하는 '비저너리(visionary)' 찬양팀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저너리 찬양팀 팀장님과 함께 청년부 찬양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Q1. 청년부 찬양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청년부 찬양팀은 악기팀, 싱어팀, 각 파트 팀장과 전체 팀장, 담당 사역자이신 김다은 전도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시는 백종승 부장 집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전 두 번에 걸쳐 연습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Q2. 찬양팀 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먼저 첫 번째는 코로나 시기의 예배입니다. 당시에 집합 제한이 격상되어서 한 장소에 모이는 인원이 최대 1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설교자 목사님, 음향 간사님, 찬양 인도자와 건반 반주자 한 명으로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예배드렸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 함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현장에는 나



오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생생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녹화를 하지 않고 실시간 예배로 진행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팀 모임 중, 이색적인 팀 모임을 해 보고 싶어서 팀 리더들과 함께 미니 게임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방마다 테마를 만들어 게임을 진행하고, 단계별로 올라가는 형태의 팀별 대항전이었어요.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도, 그리고 함께 고생한 팀 리더들도 정말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Q3. 찬양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찬양을 선곡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목사님의 말씀 준비 과정과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신앙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찬양을 통해 어떻게 회중에게 전달할지 고민하며 예배를 구성해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양을 따라 부르는 과정은 성도들이 자신의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Q4. 추천하는 찬양이 있나요?

'엘레베이션 워십(Elevation Worship)'의 <Praise>라는 찬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흑인과 백인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조화를 CCM에서 드러낸 점이 이색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024 청년부 여름 국내 단기선교 홍천 풍암교회

기획 이종수 청년기자

일시 2024년 7월 25일 ~ 2024년 7월 27일, 2박 3일

장소 강원도 홍천 풍암교회

사역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 농촌 일손 돕기, 식사



국내 단기선교를 다녀오며

우리 선교팀 안에 먼저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사역 준비를 위해 회의하다 보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마음 상하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함께했던 기도 덕분에 끝까지 우리 선교팀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역을 잘 마친 것에 감사해요. **한민 전도사**

이번 선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채워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은혜**

‘식사팀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맛과 영양까지 챙기겠다며 메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매번 맛있게 잘 먹어준 광성 청년들과 홍천 아이들!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부르게 전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박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꿈같은 선교였습니다! **박성운**

위험하거나 엄청난 도움이 필요한 곳은 아니었지만 국내선교팀은 무엇이든지 좋게 받아들였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해내며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공동체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온 청년들이 많아져서 참 감사해요. 준비 과정부터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다혜**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함께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묵상하며 한마음으로 그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함께 견뎌내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것을 아마 팀원들 모두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우주 전도사

청년부 여름 해외 단기선교 네팔

기획 이종수 청년기자

일시 2024년 7월 4일 ~ 2024년 7월 12일

장소 네팔 카트만두, 비라뜨르걸 등

사역 어린이사역, 집회사역, 식사사역, 말씀사역, 성경세미나



1 네팔 출발 전 청년들의 모습

2 임마누엘교회에서 이틀 동안 200인분씩 총 400인분의 음식을 네팔 사람들에게 대접했다. 닭볶음탕, 떡볶이, 볶음밥 등 청년들이 한국에서 직접 준비해 간 음식이다.

3 네팔의 문화대로 손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



4 빈민촌 지역의 '던여교회' 어린이들. 70명 정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200명이 넘게 왔다

5 13시간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임마누엘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모습

6 아이들과 함께 사진찍는 청년의 모습

7 차선우 목사는 임마누엘교회에서 어른들 대상으로 '말뭉' 강의를 진행했고,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8 파슈파티나트 사원으로 힌두교 최대의 성지이며 '시바신' 신전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야외 화장을 행하 기도 하며 앞 강물에 그 재를 뿌리면 영생을 얻는다고 여기기도 한다

네팔 선교를 다녀와서

나에게 네팔은 '끝까지 붙어 있는 숨'이었다. 3억 3천 종류의 신을 믿는다는 네팔. 하나님께서 그런 네팔 땅을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다 죽어 가는 땅처럼 보이지만 그 곳은 여전히 성령께서 숨을 쉬고 있는 곳이었다.

차선우 목사

네팔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낮은 자를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디에나 존재하고 넘쳐흐르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재하

네팔 단기선교를 통하여 제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알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연식

하나님께서 네팔 땅 곳곳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오니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감사하다. 박주영

하나님께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되돌아보았다. 문찬기

전도사가 된 후 처음으로 인솔자가 되어 가는 단기선교이다 보니, 허둥대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선교지에서의 은혜를 보고 느끼기보다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상황을 이끌어 한 것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분을 신뢰하려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다운 전도사

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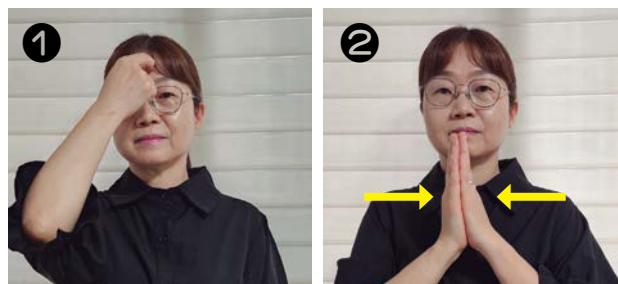
수어통역 장현정 권사(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장)

안녕하세요? 수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이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짹짹!

찬양



기도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이
제공됩니다.

예배



설교



문화
&
독자 마당

해금 연주자 김명진



1. 해금을 만나다

어린 시절 국악한마당을 통해 해금과 처음 마주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 해금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이제야 만났구나, 평생의 내 짝!'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소리찬양대에서 해금을 배우면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으로는 고3이 되어서야 결정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늦었지만 더욱 좋은 소리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늦었더라도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진학해 해금의 소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며 해금 연주자로, 그리고 해금 찬양 연주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을 통해 해금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2. 해금이란?

해금은 두 줄로 된 찰현악기로 통, 북판, 입죽과 활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은 울림통에 세로로 대를 세우고 울림통과 대를 2개의 줄로 연결한 악기입니다.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궁중 음악뿐 아니라 민속음악에서까지 폭넓게 연주되고 있습니다. 연주 형태에 따라 관악기, 또는 현악기로 분류하므로 비사비죽(非絲非竹)이라고 합니다.

3.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의 계획

그냥 해금 연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금 찬양 연주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2회 해금 찬양 연주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매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양했던 곡들을 모아 해금 찬양 앨범을 발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찬양으로 찾아 뵙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국악그룹 누리봄 대표
예술단체 ON:明 (온명) 동인
해금 정악 연구회 백연악회 회원
지영희류 해금산조 보존회 회원

2022년 김명진의 첫 번째 해금 찬양 콘서트 <은혜, 해금>
2022년 김명진의 첫 번째 해금 독주회 <여름밤의 풍류>
2022년 국악그룹 누리봄 창단 연주회 <아리랑의 꿈>

노이즈 캔슬링

글 서보연 권사



죄로 인해 멀어진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치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무효라고 아니라고 하신다

왜 못 들을까 왜 안 들릴까
노이즈 캔슬링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들리는
이어폰을 꽂고 있다고 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을 구하며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고 하신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사각지대를 돌아볼 수 없고
육신의 소욕 이생의 자량이
더 큰 사각지대를 만들다니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육신의 욕구는 모두 노이즈 캔슬링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이즈 캔슬링

- 어느 새벽, 초등2부 김현일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오 헨리(O. Henry) 크리스마스 선물

글 김형수 기자(소설가, 필명 김범)



짐과 델라는 가난한 부부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라 아내 델라는 남편 짐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멋진 시곗줄을 사주고 싶었고 짐은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에 어울리는 예쁜 머리핀을 사주고 싶었지만 짐도 델라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델라는 머리카락을 팔아서 짐의 시곗줄을 사고 짐은 금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삽니다. 크리스마스 날,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은 무용지물이 되지만 짐과 델라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 단편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소설의 원제목이 『동방박사의 선물』임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렸던 동방박사 이야기를 비유해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돌아보자는 취지로 아마 이런 제목을 붙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자 오 헨리(O. Henry)는 인생 초반부에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잠시 두 자녀를 얻는 기쁨을 누렸으나 두 자



녀 모두 오 헨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횡령 사건으로 수배되어 해외로 도피했다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임종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와서 아내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이후 5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미국 2세대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우뚝 섰습니다.

단문과 쉬운 단어를 주로 사용한 작가는 크리스마스 선물 을 포함해 많은 소설에서 트위스트 엔딩, 즉 예상치 못한 반전을 능수능란하게 보이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작가는 주로 서민의 애환과 아픔을 그렸는데 트위스트 엔딩 기법도 기법이지만 사실 그보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작가로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겨자씨』 마지막 서평으로 택한 까닭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당시의 부모들처럼 사랑을 표현하는데 무척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원하지 않던 상처도 주었고 다툼도 잦았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아주 가끔 어머니 생일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에 대한 연시(戀詩)를 새긴 손수건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선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굉장히 실망했고 속상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이 되어가는 요즘 어머니는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때 그 선물을 받고 고맙다고 할 걸.’ 하시면서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사랑을 바로바로 표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아직 성탄절은 많이 남았으나 지금부터 올해 성탄절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에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껏 그 사랑을 표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단편을 마지막 서평 작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파주 여행지 3곳

글 고예남 청년기자

올해 가을, 마음의 양식을 추수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 가을은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올해 가을에는 곡식을 추수하면서 마음의 양식까지 추수해 보는 건 어떠세요? 마음의 양식까지 추수하면 더 의미 있는 가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양식을 추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양식을 쌓기 좋은 파주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양식을 쌓고 싶을 때는 종종 파주에 가는데,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여유롭게 양식을 쌓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 지혜의숲

1. 파주 지혜의숲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은 파주 출판 단지 내에 있는 파주 지혜의숲이에요. 장소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마음에 양식이 채워지는 거 같지 않나요? 파주 지혜의숲은 다른 곳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책이 모여있어요. 1관부터 말씀드리자면, 1관은 오전 10시~오후 5시에만 운영하고 국내 학자와 지식인,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증 도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2관은 운영시간이 오전 10시~오후 8시이고, 3관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지혜의숲의 가장 큰 장점은 입장료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책들이 많고 입장료까지 무료라서 마음에 양식을 정말 잘 쌓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죠. 지혜의숲에는 아동 도서 코너도 따로 있고, 야외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린 왕자 등 귀여운 캐릭터도 있어서 자녀분들과 함께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 작업 공간 테이블도 다양하게 있어서 책 읽으시다가 작업도 하실 수 있어요.

2. 레드브릿지 카페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은 레드브릿지 카페예요. 마음의 양식은 도서관에 있는 책으로도 쌓을 수 있지만 풍경 좋은 카페에 와서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제가 파주에 오면 방문하는 카페인데 통창이라서 너무 좋아요. 통창이 주는 시원한 느낌을 받는 동시에 무릇 익어가는 나무들이 한꺼번에 보여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 레드브릿지 카페



레드브릿지 카페는 각 층마다 느낄 수 있는 분위기도 달라요. B1층은 실외 좌석인데 야외 정원과 호수 테라스, 전망 브릿지 쪽이라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주문은 1층에 있는 커피와 베이커리 바를 통해서 하고 주문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전망 테라스에 앉아서 풍경을 구경하는 것을 추천해요. 2층에 올라가면 돌마루와 바람의 복도, 마지막으로 사색의 방까지 있는데 저는 2층이 가장 좋았어요. 인테리어에 맞춰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모두 달랐거든요. ROOF 층은 오두막 테라스가 있는 실외 좌석인데 푸른 하늘과 이쁜 풍경을 한눈에 담으실 수 있어서 이곳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3. 마장호수

레드브릿지 카페에서 맛있는 디저트를 즐겼다면 마장호수에서 산책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마장호수에는 넓은 풍경을 감상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흔들다리가 있어요. 흔들다리는 많은 방문객이 사진을 찍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흔들다리를 다 건너면 강을 기준으로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따로 형성되어 있어요. 우거진 나무가 그늘 역할까지 해줘서 선선한 바람과 함께 산책할 수 있어요. 저는 산책하면서 나무도 구경하고 옆에 흘러가는 강물도 구경하며 마음의 양식을 제대로 쌓고 왔어요. 마장호수 흔들다리 길 이보다 마장호수 산책로 길이가 더 길어요. 긴 산책로를 통해 마음에 양식을 더 깊게 쌓으면 좋겠어요.



⌘ 마장호수

⌘ 마장호수 흔들다리

오늘은 파주에서 마음에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렸는데 괜찮으셨나요? 올해 가을에는 마음의 양식을 추수하면서 더 의미 있는 가을을 보내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좋은 여행 장소가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 살아온 이야기 어쩔거나, 팔불출

글 한충경 장로



“어! 이 성경책 내 것하고 똑같네!”

이 말로 시작된 만남으로, 지금까지 44년을 동반자로 살고 있습니다.

1980년 초봄, 한 자매로부터 처음 전도를 받고 몇 주 만에 선물로 받은 『관주성경』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성경책이 똑같다고 하자, 청순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웃던 모습. 초신자인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서로가 통했는지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한 것 같습니다.

아내는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오직 예수밖에 모릅니다. 그때 아내가 읽어보라고 주었던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읽고는 신앙인이 되는 게 쉽지 않음을 깨달았지요(사실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런 저에게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집, 김형석 교수님의 산문집 등이 여러모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양식의 공급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야 기도회에 매주 같이 다니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아내는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갔고, 나는 아내가 좋아서 무작정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영업하는 가게가 닫혀있어서 가보니 아파서 누워있었지요. 그즈음 아내는 건강이 몹시 나빠져 자주 앓았고, 경제 사정마저 궁지에 몰려 힘든 시기였습니다. 택시를 불러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서 ‘이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나와 함께하자고 아내를 설득했는데 양가의 반대가 만만찮았어요. 실은 아내는 사별 후 재혼이었고, 저는 초혼이었습니다. 모든 걸 무릅쓰고 용감하게 밀어붙인 까닭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집안에서 쫓겨났고, 서로 빈털터리여서 결혼 초에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지요. 나는 아내의 지난날을 굳이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지요. 인생은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덕분에 아들과 딸이 생겼고 후에 아들을 더 낳아 삼 남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큰아들은 대기업 중견 간부로, 작은아들은 공무원으로 알토란같은 가정을 이뤄 주

님 안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아내의 헌신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내가 신앙심이 약해질 때마다 아내의 조언은 힘이 되어 나를 굳건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내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우스갯소리로 ‘나는 마누라 치마꼬리 붙들고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돌아보니 내가 보호해 준 게 아니라 도리어 보호받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혜로운 아내의 위로와 후원 속에 지낼 듯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금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선배이며 동반자이신 이신혜 권사님,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꽃향기에 실어 띄웁니다.



먼 길 떠나던 그날

글밥 짓는 할머니 밥순덕

당신이 먼 길 떠나던 그날 아침, 하얀 눈이 밤새 내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본 그날 눈이 시리도록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었습니다. 먼 길 떠나는 당신을 배웅하는 길은 눈이 발목까지 빠졌지만 그래도 전혀 추운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가는 목적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하얗게 덮인 눈과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당신이 이제는 아파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기쁨으로 나의 가슴은 마냥 콩닥거렸습니다. 우리가 보낸 많은 세월을 아무리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안타깝게 살았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당신과 내가 사랑하며 살았음을 알았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고속 도로를 달리는 차처럼 56년의 긴 세월을 달리면서 각자가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망스럽고 서운한 것들이 있었어도 지금 생각하면 미움이 아니라 애뜻한 사랑이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먼 길 떠나보내고 남은 그 시간 속에 계절이 수없이 바뀌며 지나가도 나의 남은 인생 삶 속에서 나는 여전히 당신을 따라가고 있겠지요.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랑을 찾으면서 서로 할퀴어서 서로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당신과 나의 삶은 고독하고 험난한 길을 걷어가는 나 그네의 걸음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구속이 아니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며, 당신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함께 손잡고 보듬어 안고 마치 두 사람의 다리를 묶고 가는 걸음이었습니.

나는 이제 당신이 없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당신을 사랑스럽고 기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당신이 먼 길 떠난 후 가끔씩 잠 못 이루고 서성입니다. 철쭉 같은 밤은 왜 그리 긴지요. 지금도 이렇게 홀로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만약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한다고 두 손을 함께 잡고 고백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우리 인생의 삶은 연습이 없는 생방송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그때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 나를 위해 준비해 둔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가 못다 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그리워하며 기다립니다.



△ 동생 집 다녀오던 길.
군포 산본역 앞에서

가을 여행 사진 한 컷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글 & 사진 박정신 집사



저희는 3대가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위해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할아버지와 손주는 둘도 없는 베프입니다. 하늘이 파랗고 높던 2023년 가을날 3대가 함께 떠난 속초여행! 속초시립박물관에서 할아버지와 손주는 그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항상 건강하게 옆에 계셔서 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삼 형제와 코스모스

글 & 사진 정귀정 성도



2023년 가을, 아들 삼 형제와 함께 인천공항 하늘공원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드넓은 코스모스 꽃밭이 가을 분위기를 물씬 선물했습니다. 아들 삼 형제는 하늘거리는 형형색색의 코스모스를 친구 삼아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 형제는 수시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비행기가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서 머리 바로 위를 날아가는 모습을 신기해 하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꽃과 노을과 더불어 보낸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독자 사진 이벤트

‘눈 오는 날’을 주제로 여행 사진 한 컷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채택된 사진과 사연은 겨울호 『겨자씨』에 소개되며, 소정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 방법 : ‘눈 오는 날’ 사진 1장 & 사연 5~6줄
참여 기간 : 11월 4일까지
보낼 곳 : jye3315@naver.com



필리핀 판디에 직업학교를 세웠습니다

글 손민준 목사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 인근 쓰레기 마을 톤도에서 강제 이주 된 판디 불라칸 지역에 크로스로드 선교팀 20명이 빈민 지역의 자립을 위한 직업학교를 세우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장로교 통합측 교단 이성광, 정인숙 선교사가 톤도 쓰레기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성도들이 판디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하게 되면서 성도들과 함께 판디로 사역지를 옮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약 8평의 집을 지어 이주민들에게 장기 임대 형식으로 주었지만 빈민들만 모여 살다 보니 일자리가 없어 다시 마닐라로 가서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들의 자립을 돕고자 직업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로드의 랍비직업개발원을 통해 교육받은 목사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업학교의 강사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직업 훈련 과목으로는 에어컨 설치, 전기, 용접, 제과제빵, 이미용, 재봉 등으로 점차 필요한 부분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6월 19일 직업학교 개원식에는 한국의 정성진 목사님 부부를 포함한 20명의 선교팀과 현지 지역의 교육부, TESDA, 보건부, 부시

장 등 지역 유지분들 및 교회 스태프 등 현지인 약 30여 명, 총 50여 명이 참석해 개원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전도 대상 다섯 가정에 장판을 깔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녁에는 현지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 성도들과 함께 약 300여 명이 수요예배를 드리고 미리 준비한 도시락과 쌀, 그리고 슬리퍼 등을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크로스로드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한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4 AUTUMN
VOL.52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 2010년 1월 13일 통권 52호

등록번호 : 고양 라00082

발행인 : 박승현

발행일 : 2024년 10월 6일

인쇄 : 천광인쇄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 최아인, 태경환

청년부 취재기자 : 고예남, 김다빈, 조희성

장년부 취재기자 : 김용기,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우주희, 박길환, 임보미

사진기자 : 이종수, 이용주

편집 : 김형수, 임보미

책임편집 : 조희경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 전영의



소통과 섬김이 있는 삶

메주꽃 요양원

☑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생활 공간

☑ 소수 인원으로 가정 같은 아늑한 분위기

☑ 요양기관전문 협력병원 지정으로 촘촘한 의료서비스 구축

☑ 가정방문간호사, 상주 간호 요원 배치

☑ 실·내외 CCTV, 자동 대문, 자동개폐출입문, 넓은 주차장

☑ 요양시설 전문 영양사의 균형 잡힌 식단

☑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내포 IC 2분 거리

☑ 계약 의사 방문 진료(2, 4주 수요일)

프로그램



치매 프로그램

노래교실

미술교실

이야기교실

여가 프로그램

놀이교실

실버체조

음악감상

인지 프로그램

학습지 활동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ju_nursinghome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현말길 142

☎ 전화 031)953-9935, 010-9794-9879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5호점 자유로점

OPEN!

2024.04.08 자유로점 오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확하자마자 바로 식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육 · 즉석반찬 및 즉석두부
제철과일 을 함께 만나보세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74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1층
로컬푸드직매장 5호점 자유로점

TEL: 031)906-8701

금용점포 ■ 본점 975-8061 ■ 풍산지점 906-3234 ■ 산돌지점 977-6540 ■ 마두역지점 903-6251 ■ 자유로지점 906-8161 ■ 양지지점 922-4381
■ 강촌지점 932-8061 ■ 정발산역지점 908-8061 ■ 백석역지점 904-8061 ■ 탄현지점 912-8061 ■ 풍동지점 907-8071 ■ 탄현북지점 916-8061
■ 풍산역지점 977-8062 ■ 킨텍스역지점 918-8061 **경제사업소** ■ 영농지원센터 907-0252 ■ 제1·2농기계서비스센터 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로컬푸드·APC 추진사업소 975-8701 **로컬푸드** ■ 로컬푸드 풍산점(1호점) 906-3666 ■ 로컬푸드 일산점(2호점) 975-8322
■ 로컬푸드 장항점(3호점) 907-8161 ■ 로컬푸드 킨텍스역점(4호점) 918-8161 ■ 로컬푸드 자유로점(5호점) 906-8701 ■ 로컬푸드 민마루점(6호점) 추진중